박물관 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25년 하반기 - 87호

왼쪽 상단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봉황문 암막새(출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가릉빈가문 수막새, 유금와당박물관 소장
용문 암막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범자명 막새, 유금와당박물관 소장
청유용문 수막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25년 87호

『박물관사람들』 87호의 기획 주제는 '새김, 새기다' 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새겨진 기증 문구들을 모은 '기증 지도'를 시작으로, 고려와 조선의 수막새 무늬들, 삼국의 인장, 사리장엄구, 묘지석 탁본 등의 '새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6년 박물관강좌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박물관사람들』 87호와 함께 따듯한 겨울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창간일	2003. 3. 15.
발행일	2025. 11. 11.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총괄	이재범
기획 편집	김 온
홍보사진	강태주
제작	동방문화
문의	02)790-5090 / fnmk1974@fnmk.org

특집

04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의 '기증 지도'

새김, 새기다

06 처마 끝에 새겨진 이야기- 와당
10 인장, 존재를 증명하는 새김
14 과거의 불교 신앙을 간직한 사리장엄구
18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돌에 새긴 기억

2026년 박물관강좌 소개

22 특설강좌
23 연구강좌
24 테마강좌
25 모집안내

박물관회에서는

26 2025년 박물관강좌 설문조사

답사기

28 2025년 9월 강원 원주, 10월 전북 무주 답사 스케치

에세이

30 2025년 국외답사 기행문: 켈트의 바람이 부르는 곳으로...
34 2025년 특별전 마나모아나展 관람기: 원더랜드

박물관에서

38 일상 속에서 만나는 천 년의 아름다움, 고려청자박물관

소재구의 도시 이야기

42 나일강의 선물, 고대 이집트 문명과 유적

박물관회 소식

46 제15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모
48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개관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49 기부회원 소개

『박물관사람들』
온라인으로 보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의 '기증 지도'

전시실로 들어가는 길, 전시실의 이름과 소개말 근처에 적힌 '기증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 특집기사는 전시실 안쪽 벽, 누군가의 기증과 기부를 알리는 한 문장을 조명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여러 전시관과 전시실 중 누군가의 기증과 기부로 조성된 곳은 어디일까요?

국립중앙박물관회와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FM). 그리고 기업과 개인이 전시실 조성에 참여했음을 알리는 '기증 문구'와 기증자 현판의 위치를 전시실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보물찾기처럼 기증 문구를 발견하는, 새로운 전시 관람의 재미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YFM 기증·기부

기업과 개인 수장가의 기증·기부

상설전시실 1층

상설전시실 2층

상설전시실 3층

처마 끝에 새겨진 이야기-와당

신은희 유금와당박물관 학예실장

지붕 처마 끝을 장식하는 기와, 와당(瓦當)은 우리말로 막새라 불린다.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동아시아의 목조 건축물 지붕에는 기와가 올려진다. 지붕 위에는 수키와와 암키와가 서로 맞물려 이어지고, 그 끝에는 각각 수막새와 암막새가 부착되어 전체 지붕을 구성한다. 예로부터 이들 기와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여와(女瓦), 부와(夫瓦)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고개를 젖히고 햇빛의 눈부심에 잠시 적응하면 비로소 보이는 처마 끝단에 자리한 와당 속에는 권력과 신앙, 복과 장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새겨져 있다. 와당은 단순한 건축 부재를 넘어 작은 공간 위에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과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도1. 연화문 수막새, 백제, 대통사지 (공주교육대학교박물관)

도2. 귀면문 수막새, 고구려, 평양 청암리사지 (유금와당박물관)

도3. 가릉빈가문 수막새, 통일신라, 경주 보문사지 (유금와당박물관)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와당은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와 함께 본격적으로 궁궐과 사찰 건축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연꽃무늬(도1)와 귀면(鬼面)무늬(도2)가 중심을 이루었는데, 연꽃은 불교적 정화와 영속성을, 귀면무늬는 벽사와 왕권을 상징하였다. 문양은 이후 통일신라에 이르러 한층 다양화된다. 비천과 가릉빈가(도3), 사자무늬, 당초무늬(도4)와 인동무늬 등 불교적 상징과 장수를 기원하는 문양들이 막새 문양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시기의 와당은 왕실과 귀족, 사찰 건물 등 특정 계층에만 허용된 고급 건축 부재로, 당시 사회의 위계와 권력을 드러내는 표식이기도 했다.

도4. 당초문 암막새, 통일신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고려시대에 접어들면 와당은 새로운 미감을 보여준다. 궁궐과 사찰에는 여전히 연꽃과 귀면무늬가 이어지는 한편, 귀목무늬(일휘무늬, 보주무늬)(도5)와 같이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문양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 문양은 도깨비 눈을 형상화한 벽사의 상징, 불교적 내세관에서 해석한 태양, 보배로운 구슬을 의미하는 보주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문헌에 남은 기록은 없지만, 오히려 그 상징의 모호함 속에서 고려인의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미감을 느낄 수 있다. 동시에 고려 궁궐에서는 청자기와(도6)가 사용되었다. 비색 유약을 입힌 청자기와에는 모란과 당초문이 새겨져 있고, 이는 부귀와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이었다. 고려 의종이 양이정(養怡亭)에 청자기와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고려 궁궐의 화려함과 예술적 수준을 잘 보여준다.

고려 후기가 되면 국제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양이 나타나게 된다. 원나라의 영향으로 천자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봉황(도7)과 용이 왕실 문양으로 채택되며, 불교는 밀교적 경향이 확대되면서 불교미술품뿐만 아니라 와당에도 범자(梵字)(도8)가 새겨지기 시작한다.

도5. 귀목문 암·수막새, 곤릉, 고려(국립문화유산연구원)

도6. 청자 막새,고려, 개성 만월대 (유금와당박물관)

도7. 봉황문 수막새, 고려, 개성 만월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도8. 범자문(oṃ ma ṇi pa dme hūṃ) 수·암막새, 고려, 평양 인흥리사지 (유금와당박물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라 와당 문양도 변화를 맞는다. 봉황(도9)과 용(도10) 문양은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장(紋章)으로 정착하였으며, 초기에는 고려의 양식이 그대로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만의 조형미로 변화하였다. 왕권의 강약에 따라 용과 봉황의 형상도 달라졌는데, 임진왜란과 같은 사회·경제적 혼란기에는 문양이 잠시 위용을 잃었으나, 영·정조 시대를 지나 고종대에 이르러 왕권 강화와 함께 다시 섬세한 형상으로 부활하였다(도11, 도12). 특히 이 시기에는 왕실의 위계와 외교 관계를 상징하는 청기와(靑瓦)가 사용되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1433년(세종 15)에 처음 언급되며, 실제로 경복궁 침전지에서 청유(靑釉)가 시유된 용문 막새가 다량 출토되었다. 청기와는 중국에서 '동궁(東宮)의 제도'였기에, 조선에서는 왕실의 권위와 명(明)과의 외교 질서를 반영한 상징물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작된 청유 용문 막새는 현재까지 궁궐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최고 위계의 기와로 남아 있다. 즉, 청기와는 용·봉황 문양과 함께 왕조의 성쇠와 권위를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이었다.

도9. 황녹유봉황문 수막새, 조선,
경복궁 침전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도10. 청유 용문 수·암막새,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도11. 봉황문 수막새,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도12. 용문 암막새,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도13. 거미문 암막새, 조선(국립중앙박물관)

도14. '수(壽)'자문 수막새, 조선, 경복궁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도15. 희자문 수막새, 조선, 경복궁
흥복전지(국립문화유산연구원)

도16. 명문 암막새, 조선(유금와당박물관)

도17. 암막새 문양틀, 현대(고령기와)

도18. '公'자가 찍힌 수키와, 조선시대
와서(瓦署) 유적(한국문화유산연구원)

도19. 「조(造)」명 암막새, 조선(1609), 옥산서원 경각
(와장 김은동-근현대기와와 기와명장)

와당 문양에는 장수와 행복을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다. 박쥐, 거미(도13), 수(壽)자(도14), 희(喜)자문(도15)등은 오래 살며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길상 문양으로, 중국 청대에 성행하던 문양이 조선에 전해져 왕실의 의복과 기물, 그리고 와당 문양으로 채용되었다. 이러한 문양의 수용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바람과 미감을 반영한 결과였다.

조선시대 사찰은 어땠을까? 유교 국가로서 조선은 억불숭유 정책을 내세웠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대규모 사찰 중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궁궐과 동일한 용과 봉황무늬 와당이 사용되었고, 왕실을 상징하는 청기와가 올려지기도 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불교를 억압했지만, 실제로는 왕실 내부에서 불교가 이어진 양면적인 현상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산군-중종 이후 불교에 대한 억압이 심화되면서 사찰들은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사대부나 민간의 시주에 의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원자의 이름과 제작자, 공덕을 새긴 명문 기와(도16)의 제작이 성행했고, 이는 곧 불사에 참여한 이들의 마음을 새기고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작 기술 또한 와당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와당은 문양이 새겨진 목제나 도제 틀(도17)에 점토를 넣고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고대부터 전문 제작 집단이 존재했다. 기와 제작은 국가에서 관장하였고, 기와를 제작하는 와공, 관리하는 부서, 가마 및 공방 등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 실제로 기와에는 '公'(도18), '別' 등의 제작처와 수급처를 나타내는 글자와 '造'(도19), '造作'등의 글자가 제작연도와 함께 새겨져 당시 기와 제작과 공급에 있어 많은 정보를 전해준다.

오늘날 박물관에서 마주하는 와당은 대부분 옛 건축물이 있었던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흙 속에서 발견된 작은 와당들은 당시 사람들의 권력과 신앙, 그리고 삶의 바람을 증언하고 있으며, 고고학자와 장인의 손길을 통해 복원되고, 다시 전통을 이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와당은 단순한 건축 부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과 권력, 신앙과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궁궐의 용과 봉황은 왕조의 권위를 대변했고, 청자기와에 새겨진 모란은 부귀를 상징했으며, 사찰의 명문 기와는 발원자의 이름을 남겼다. 지붕의 처마 끝에서 긴 시간 묵묵히 나라의 안녕과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했던 와당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인장, 존재를 증명하는 새김

성인근 경기대학교 서예전공 교수

고서나 족보를 보다보면 이름 위에 비단 천 조각이 붙어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조상의 이름을 보거나 남들에게 노출하기 황송하여 가린 조처였다. 또한 고서점에서는 소장자를 표시한 장서인(藏書印)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거나 아예 도려내진 옛 책을 간혹 발견하는데, 후손들이 집안 어른의 이름이 남에게 함부로 읽히거나 불림을 꺼려한 방법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름은 개인을 나타내는 상징어이자 언어부호이다. 여기에는 직·간적접으로 개인이 속한 집단을 비롯한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 등이 녹아 있다. 예컨대 가족, 종족, 종교, 지역, 국가 등 다양한 문화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수명천고(垂名千古)', '만고유명(萬古留名)' 등의 어구를 만들어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 왔다. 즉 이름을 통해 삶의 공과(功過)가 오랜 시간 역사로 남는다는 교훈이라 하겠다. 또한 전근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입신양명 이현부모(立身揚名 以顯父母)'는 자신의 이름을 드날려 부모나 가문을 드러내는 일을 효의 궁극적 가치로 보는 인식을 잘 보여준다. 살아 있는 동안의 영예도 중요하지만, 빛나는 이름이 길이 후세에 전하기를 더욱 바랐다. 훌륭한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일을 개인사 최고의 이상이자 효도의 최고 순위로 여겼던 인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생애 최초의 이름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사망 때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전근대의 이름은 생애의 여러 주기마다 바꾸어 나가는 방식이 관례였다. 태어나면서 아명(兒名)을 지었고, 이름을 존중한 동양문화의 관념으로 자(字)를 두어 이름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러 별칭을 써서 사람의 인격을 대신했는데, 아호(雅號)·당호(堂號)·별호(別號)·택호(宅號)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사후에는 시호(諡號)를 두어 죽은 이에게 인격과 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생애 주기마다의 이름들은 고스란히 인장으로 새겨져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이자 개인의 품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1798년 정조(正祖)가 좌상(左相)에게 보낸 편지의 봉함인(封緘印)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정조는 자신이 직접 지은 아호를 새겨 봉함인으로 사용했다. 《정조어찰》, 개인소장.

이란의 페르시아 인장, 배타는 장면, 기원전 2,500년경(『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국립중앙박물관, 2008에서 전재)

인장은 문자를 역상(逆像)으로 제작하여 찍어낸다는 측면에서 활자와 유사하지만 기원은 활자보다 앞선다. 인쇄술이 탁본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지만 표면에 안료를 바르고 압력을 이용해 찍어내는 방식이나, 문자를 거꾸로 제작한다는 점에서 인장이 좀 더 유력한 모태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장의 제작과 사용은 인쇄술의 기원보다 앞선다.

인장의 기원은 기원전 약 5,000년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둥근 인장의 몸통에 무늬를 새기고, 이를 진흙에 굴려 요철을 만든 방식이 시초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원통형 인장 이후로도 인장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였다. 고대 이집트의 풍뎅이 모양 인장, 고대 인도 모헨조다로에서 출토된 인장, 그리스 · 로마에 이은 유럽의 반지형 인장, 태국의 상아로 만든 불탑 인장, 이란에서 발견한 페르시아 제국의 원통형 인장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장문화가 형성되었다.

초기 메소포타미아의 원통(실린더) 인장은 한 번 굴리면 연속된 장면이 나타나는 특성 덕분에 물품 이동 기록, 출납 장부 봉인, 창고 출입 통제 등에서 폭넓게 쓰였다. 이 원통 인장 전통은 아카드·수메르·바빌로니아를 거쳐 아시리아·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되며, 신화·왕의 수렵, 공양 행렬 등 복합적 서사 장면을 담았다.

이집트에서는 풍뎅이 형의 소형 인장이 기원전 2,000년부터 보급되었다. 밑면에 상형문자·왕명·도상 등을 새겨 부적과 봉인의 이중 기능을 수행했고, 교역을 통해 레반트·크레타 등지로 퍼졌다. 인더스 문명권(모헨조다로·하라파)에서는 정방형 석제 인장이 대표적이며, 물소·호랑이·신수(神獸) 같은 도상과 아직 해독되지 않은 문자열이 병기된다. 이후 인장문화는 그리스·로마로 이어지며 금·보석 세팅의 반지형으로 제도화된다. 반지 인장은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개인 인증 수단이자 신분의 상징이었다.

고대 이집트의 반지형 인장. 기원전 약 1,500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필자 촬영(2018. 3).

동아시아 인장 유물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상대(商代) 인장. 중국 하남성 은허 출토, 타이베이 고궁박물원 소장.

다양한 세계의 인장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전파되었는지는 규명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견고한 물질에 문양이나 글자를 새겨 요철을 만든다는 점. 둘째, 인장을 찍을 때 진흙을 사용하였다는 점, 셋째, 개인이나 집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한 점. 넷째, 물건이나 문서의 봉인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초기 인장의 모습은 대부분 원통형으로 진흙에 굴려 요철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인장사의 출발점에 있는 중국의 경우 이러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인장의 밑면에 새겨 찍는 방식만이 나타난다.

중국에서 인장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대체로 상주시대로 본다. 서아시아의 원통형 인장과 달리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평평한 인면을 눌러 찍는 '평판형 인장'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 고유의 문자 문화와 행정 제도, 그리고 미감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진시황이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면서 인장의 규격과 서체도 함께 통일되었다. 이때 인면에 새겨진 글자는 주로 소전(小篆)체로, 균형 잡힌 사각형 구도와 단정한 선형이 특징이다. 한대에는 이러한 제도가 더욱 세분되어 인장의 재질과 크기, 인장의 형태가 관직의 서열에 따라 구분되었다. 중앙의 고관일수록 옥이나 금속 인장을 사용하고 지방이나 하급 관리들은 동이나 철로 만든 인장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 인장은 단순한 행정 도구를 넘어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한편 개인 인장은 점차 사적인 교류와 문화 활동에도 쓰였다. 사인(私印)은 개인의 이름, 자, 혹은 호를 새겨 자신을 나타내거나 서화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명대에 들어서는 문인(文人)이 직접 인장을 새길 수 있는 부드러운 석재가 보급되면서 인장 제작이 용이해졌다. 주로 주사(朱砂)를 활용한 인주의 사용도 확산되어 인장의 붉은 인영이 하나의 미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은 문인 전각의 미학으로 이어졌고 글씨와 조각이 결합된 예술로 발전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동아시아 3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등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과 학문의 분야인 전각(篆刻)으로 이어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 · 중국 · 일본 등에 불과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낙랑묘 출토 인장, 인문:永壽康寧,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의 인장 문화는 중국의 제도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지역적 특성과 미감을 더해져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었다. 한국에서 인장을 사용한 이른 시기의 자료는 우선 낙랑의 인장과 봉니(封泥)가 전한다. 낙랑군은 기원전 108년부터 313년까지 420여 년간 존속하였으므로 한자를 비롯한 한나라의 문물이 한반도 초기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낙랑의 유적지에서는 석인, 동인, 목인 등이 발견되었고, 약 200여 과의 봉니가 현전한다. 인장은 주로 무덤의 부장품으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사인의 성격을 띠었다. 낙랑 유물 외에도 고대 예(穢), 한(韓), 부여(夫餘) 등 국명이 확인되는 인장 유물이 현존하며, 삼국시대를 지나 특히 통일신라의 인장은 한반도 고대 인장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고려시대에는 인장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관인의 경우 국가의 공식 문서에 사용되었으며, 왕명을 대신하는 옥새가 별도로 존재했다. 고려의 옥새는 국가 통치의 상징이자 권위의 표징으로 왕권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장이었다. 한편 사인의 사용도 점차 확산되어 문인과 무인들이 자신을 표시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인장을 소유했다. 고려 후기에는 인장을 제작하는 장인층이 등장하고 인문(印文)에 이름 외에도 다양한 문양과 표식을 넣었으며 현재 '고려동인(高麗銅印)이란 유물로 많은 수량이 전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인장은 국가 제도와 개인 문화 양면에서 완전히 정착한다. 국새와 어보, 관인의 제도를 온전히 갖추어 제도로 정착시켰고, 사인 역시 문인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학자나 예술가들은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호·당호 등을 작품이나 장서, 편지 등에 찍었다. 이러한 사인은 단순한 소유 표시를 넘어 한 사람의 인품과 학문, 예술적 성향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전각 예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서예와 함께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금석학의 유행과 더불어 고대 비문과 전서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장에 새겨지는 글씨와 조각의 조형미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오늘날에도 서예와 전각을 병행하는 작가들이 많으며 인장은 여전히 동아시아 예술의 전통을 상징하는 표지로 남아 있다. 한국의 인장 문화는 단순히 중국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계층, 예술의 변화를 반영하며 독자적인 미감과 정신을 형성해 온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인장 「용문수고(龍門壽考)」.
용문산처럼 오래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용문산은 현재 경기도 양평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자 촬영(2018. 1).

과거의 불교 신앙을 간직한 사리장엄구

김민송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흔히들 '사리'라는 단어는 들어보았지만, 사리장엄구가 무엇인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리는 정확히 무엇일까? '사리'는 본래 팔리어인 'Śarīra'를 한자로 음역한 것으로 본래 몸, 뼈 유해 등의 의미였으나,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보통 사람의 유골과 구별하기 위해 부처의 유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사리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유골뿐만 아닌 부처의 정신이 담긴 불경 등도 사리로 폭넓게 받아들였다. 이 같은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 갖춰 꾸미는 모든 조형물과 관련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사리장엄으로, 사리를 직접 안치하는 사리기부터 사리기가 봉안되는 탑이나 전각, 각종 공양품과 의례 행위 모두 사리장엄에 포함된다. '사리장엄구'는 이 중에서도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용기인 사리기와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한 물품인 공양품을 합쳐 일컫는다.

사리장엄구를 제작하여 사리를 모시는 행위는 불교 초창기부터 확인된다. 사리장엄구를 제작하는 것은 불교와 함께 전파되어, 각 나라 별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사리신앙은 불교의 유입과 함께 한반도로 전래되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한반도에 처음 불사리가 전래된 곳은 신라로 진흥왕대 중국 양(梁)에서 사리를 받아온 것이 확인된다. 백제와 고구려의 사리신앙 관련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삼국이 모두 불교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사리신앙 역시 삼국에서 받아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구려의 사리장엄구는 현재 확인된 바 없으나, 백제의 사리장엄구로는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조사리감, 왕흥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가 확인되어 사리신앙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사리장엄구로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와 황룡사 구층목탑지 출토 사리장엄구가 확인된다. 삼국시대 사리장엄구는 확인된 수량은 적으나, 비교적 온전한 구성을 갖추었으며 명문 등을 통해 시대 편년 유추가 가능하다. 백제와 신라의 사리장엄구는 구성과 형태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모두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삼국시대 불교가 왕실을 중심으로 유입되었기에 사리장엄구 또한 왕실 주도로 제작된 것이다.

삼국이 통일된 이후 불교는 더욱 성행하게 되면서 사리장엄구 제작 또한 증가한다. 삼국시대에 비해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사리장엄구는 제작 횟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리기의 형태도 다양하게 제작된다.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사리장엄구는 30여 개 이상 확인되는데, 이 시기 제작된 사리장엄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통일신라시대에는 탑 2기를 나란히 제작하는 쌍탑 제작이 확인되는데, 이 쌍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또한 비슷한 형태와 구성으로 제작되어 봉안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감은사지 동탑과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가 있다. 감은사지 동탑과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사천왕 조각이 부착된 사리외기 안에 독특한 전각 형태의 사리내기에 수정사리병을 갖춘 구성으로 한국 사리장엄구에서도 손꼽히는 걸작이다. 이 같은 형태의 사리장엄구는 오로지 감은사지 탑에서만 발견되었다. 사리장엄구는 탑이라는 곳에 봉안되는 특성상 한 번 봉안하면 그 모습을 동 시기에 다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쌍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가 비슷한 형태와 구성을 갖춘 것은 제작할 때부터 어디에 봉안할지 미리 고려하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도1).

도1 왼쪽.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오른쪽. 감은사 서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두 사리장엄구는 각각 동탑과 서탑에서 발견된 것으로 세부적인 문양의 차이는 있으나 형태나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쌍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가 미리 봉안될 장소를 고려하여 유사하게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국립중앙박물관, 감은사 서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하 무구정경)의 등장과 관련 있다. 무구정경은 통일신라시대 유행한 경전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져 있다. 무구정경이 발견된 곳은 바로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으로 사리장엄구의 한 구성으로 봉안되었다. 무구정경이 사리장엄구의 한 구성으로 봉안된 이유는 무구정경 내용 속에서 확인되는데, 무구정경에 따르면 다라니를 베껴 소탑(小塔)과 함께 탑 속에 공양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업(業)과 함께 국가의 재해가 소멸한다고 한다. 이러한 무구정경 내용에 근거하여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사리장엄구는 무구정경을 사리장엄구의 한 구성으로 봉안하거나, 사리기에 99개 탑 문양을 새기기도 하며 소탑 77기 또는 99기를 봉안한 예가 확인된다. 이는 통일신라의 독특한 사리장엄 방식으로 국가의 대·내외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무구정경과 소탑을 사리장엄구로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왕실은 꾸준히 안정을 바라였으나, 통일신라 후기 왕권은 약화되고 호족의 권력이 강해진다. 사리장엄구 제작에서도 이러한 변화 양상이 확인되는데, 과거 왕실에서만 발원하여 제작하였던 사리장엄구가 호족과 일부 승려 등 개인이 발원·제작하는 것이 확인되며 사리장엄구 봉안 지역 또한 수도였던 경주 위주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사리장엄구는 종교의 산물이지만 당시의 유행과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넘어 고려라는 또 다른 통일 국가가 들어서게 된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지정하였으며, 다양한 불교 미술품이 제작된다. 사리장엄구 또한 앞선 시기에 이어 다양한 형태와 구성으로 제작되었으며, 장식이 보다 다양해진다. 고려 초기 제작된 사리장엄구는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 방식을 이어가지만, 점차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어간다. 대표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유행한 무구정경과 소탑 공양 방식이 고려 초기 제작된 사리장엄구에서는 확인되지만, 봉안되는 소탑의 수량이 적어지고 소탑의 형태도 앞 시기에 비해 간략하게 제작된다.

이후 소탑 공양품은 점차 사라지며 불상을 공양품으로 봉안하여 무구정경 신앙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청자의 유행으로, 사리장엄구에 청자가 등장하게 된다. 청자 사리기는 뚜껑이 있는 합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청자의 유행 양상을 따라 13세기부터 상감청자를 사리기로서 봉안하는 예가 확인된다. 사리장엄구로 확인되는 청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청자와 별다른 문양적인 차이가 없기에 당시 유행하는 공예품을 사리장엄구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려는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 방식을 이었으나 점차 독자적인 사리장엄 방식을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고려의 사리장엄구 제작은 또 한 번 변화 양상을 맞이하는데 고려 말기 중국 원의 영향을 받은 예가 확인된다. 중국 원에서는 한반도와 달리 티베트불교를 숭앙하였으며, 이는 고려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 간섭기 고려의 불교 미술품은 앞선 시기와 달리 독특한 형태의 미술품이 제작되며, 문양에서도 변화가 발견된다. 사리장엄구 제작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되는데, 일명 라마탑이라 알려진 티베트 불교권에서 확인되는 독특한 탑 형태를 본뜬 사리기의 제작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에서 이러한 라마탑 형태의 사리기가 확인된다. 더불어 청자 제작이 쇠퇴하고 백자가 일부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사리기 또한 백자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백자 사리기는 고려 말 조선 초 백자 제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공예품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라마탑형 사리기와 백자 사리기가 모두 사용된 예시로 당시 고려 말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도2.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1932년 금강산 월출봉에서 출토된 석함 속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이다. 이 사리장엄구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승려와 백성들의 발원을 담아 제작된 사리장엄구로 조선 건국 직전에 제작되었다. 당시 원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형태의 사리기와 백자가 사리기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까지 불교는 꾸준히 숭앙되면서 불교미술품 또한 꾸준히 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숭유억불정책으로 불교가 위축되면서 불교미술품의 제작 역시 감소하게 된다. 탑 건립의 감소는 사리장엄구 제작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사리장엄구 제작의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는데, 바로 대부분 탑에 사리장엄구를 봉안하는 방식에서 승탑이나 불상 복장물로서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것이다. 사리기의 형태는 간결한 합 또는 호로 많이 제작되었으며, 백자나 대리석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공양품 또한 곡식, 오색실, 비단 등이 함께 봉안되는 것도 새로운 변화 양상이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으나, 왕실 여성을 중심으로 불교는 여전히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져 사리장엄구 제작은 왕실 여성의 발원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간다.

사리장엄구는 이처럼 당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꾸준히 제작되어 왔다. 당시 유행하는 경전의 내용을 따라 소탑을 제작하여 봉안하기도 하며, 발원 세력에 따라 사리기 제작이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당시 유행하는 공예품을 사리기로 활용하는 것은 꾸준히 확인된다. 이처럼 다양한 사리장엄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리를 담는 사리기를 여러 개의 용기를 겹쳐 제작하는 것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당대 귀하게 여긴 재질로 제작된다. 이는 사리장엄구의 가장 핵심은 사리이기에 사리에 보다 가까운 용기일수록 유리·수정·금 등 당시 가장 귀한 재질로 제작한 것이다.

한국의 사리장엄구는 이처럼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양상을 보인다. 사리장엄구는 탑에 봉안되면 탑의 보수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 모습을 다시 세상에 보이기 어렵다. 사리장엄구는 폐쇄성을 가진 공예품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폐쇄성으로 인해 당시 불교의 신앙과 유행을 담고 있는 미술품으로 그 역사를 현재에 전하고 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돌에 새긴 기억

국립대구박물관 기증 특별전 〈萬世不朽-돌에 새긴 영원〉
(2025년 6월 17일~2025년 8월 31일)

정효은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인류는 오래전부터 돌에 무언가를 새겨 왔다. 왕의 권위를 기리는 기념물에서부터 법전과 같은 규범을 알리는 표식까지, 돌은 단단함과 영속성을 바탕으로 기억을 담아내는 매개체였다. 종이나 천에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만 돌에 새긴 글과 문양은 세월을 견디며 후대에 전해졌다. 사람들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돌에 새기며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기억을 이어가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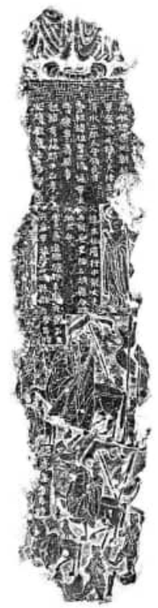
국립대구박물관은 이러한 기억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 〈萬世不朽만세불후–돌에 새긴 영원〉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중국 섬서한당석각박물관에서 기증받은 탁본 자료 58건 72점을 선보였다. 기증품은 북위(386–534)에서 당(618–907)에 이르는 불교 조각과 묘지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대다수는 묘지명이다.

묘지명, 인생의 마지막 이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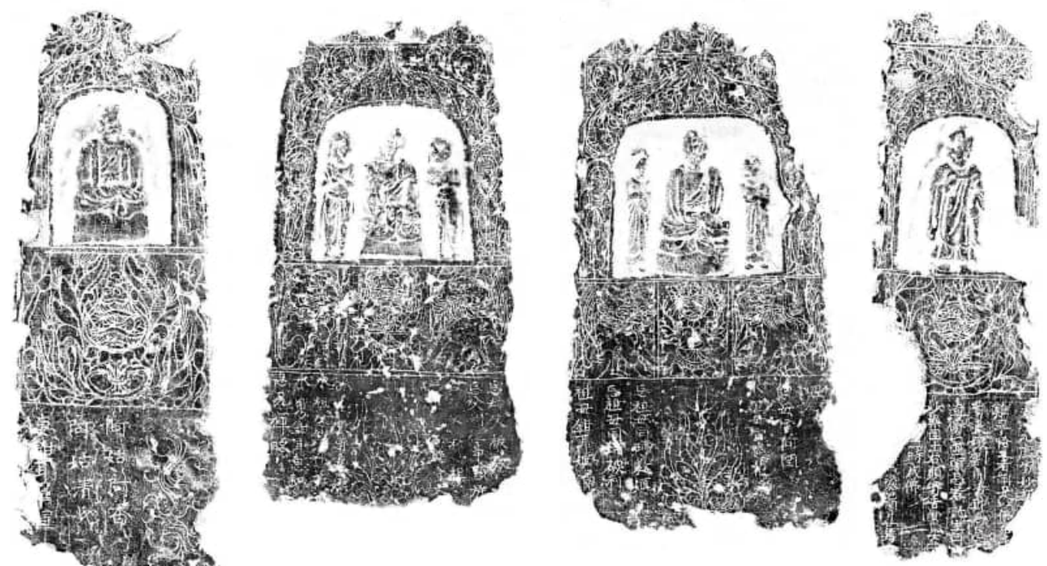
묘지명은 무덤 속에 함께 묻혔던 일종의 이름표이자 기록물이다. 산문 형식의 지(誌)와 운문 형식의 명(銘)을 합쳐 '묘지명(墓誌銘)'이라 불렸으며, 고인의 신원과 생애, 가계, 사망 경위와 장례 절차까지 자세히 담았다. 원래는 무덤이 훼손되었을 때 고인을 식별하기 위한 '최후의 인식표'였지만, 동시에 죽은 이를 잊지 않으려는 유족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묘지[1]가 삼국시대의 유일한 사례다.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도자기나 돌로 제작된 묘지명이 전해진다. 묘지명은 특정 왕조나 지역을 넘어,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했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죽음을 기리고 삶을 기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묘지명의 의미를 세 가지 주제로 풀어냈다. 1부 「세상을 담다」에서는 묘지명이 성립하던 남북조시대의 정치적·종교적 배경을 소개하고, 2부 「이야기를 새기다」에서는 묘지명의 기능과 제작 목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3부 「일생을 쓰다」에서는 한 개인의 기록을 통해 사회와 시대가 어떻게 한 생애에 반영되는지를 조명하였다.



석생 조상비 石生 造像碑 / 북위 후기 (386-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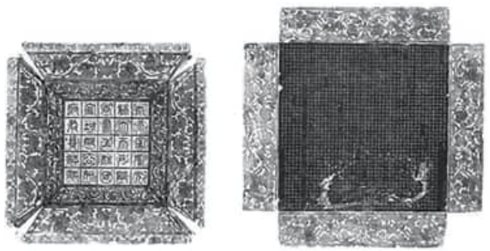
부몽건양 조상비 夫蒙建孃 造像碑

1) 이번 전시에서는 묘지에 추모시인 명이 있는 경우에는 묘지명, 묘주의 신상을 적은 지만 있는 경우는 묘지로 구분하였다.

한 시대를 담은 역사자료

묘지명은 단순한 개인의 일대기를 넘어, 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고인의 출신과 가계, 혼인 관계, 사망 시점과 장례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당시 사회 구조와 가족 제도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요정 묘지명〉과 〈구양씨 부인 묘지〉는 그 좋은 예다. 두 묘지명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부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환 묘지명〉은 요환의 4대조의 계보를 추적해보면 요정이 요환의 작은 조부였음을 알 수 있어, 세 묘지명을 함께 읽으면 한 가문의 계보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평범한 듯 보이는 돌의 글귀가 서로 연결되며 한 집안의 관계망이 되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묘지명이 단순한 개인의 전기를 넘어 가족사와 혼인 네트워크를 복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료史料임을 실감하게 된다. 나아가 어떤 묘지명에는 글을 지은 찬자撰者, 글씨를 쓴 서자書者, 새김을 맡은 각공刻工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뿐 아니라 당대 문장가와 서예가, 장인의 활동까지 함께 엿볼 수 있다.



요정 묘지명

당唐나라 대신 요정姚珽(641-714)의 묘지명이다. 요정은 명문가 출신으로 측천무후則天武后부터 현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중앙과 지방에서 요직을 지냈으며, 훈고학訓詁學과 음운학音韻學에 밝아 『한서훈찬漢書訓纂』 30권, 『소훈紹訓』 40권을 지었고 문집 20권을 남겼다.

구양씨 부인 묘지

강국부인江國夫人 구양씨歐陽氏(650-721)의 묘지명이다. 부인의 조부 구양순歐陽詢(557-641)은 해서의 대가로 알려졌고, 부친 구양통歐陽通(미상-691) 또한 서예로 이름을 떨쳤다. 구양씨는 721년 72세로 별세하였고, 723년 남편 요정姚珽(641-714)과 합장되었다.

요환 묘지명

요환姚寰(738-812)의 묘지명이다. 요환의 조부 요숙姚璹(632-705)은 호부상서를 역임한 인물로, 요정姚珽(641-714)은 요숙의 동생으로 요환의 작은 조부이다. 묘지명에 따르면 요환은 강직한 성품과 기개가 있었으며, 벼슬을 받았으나 달가워하지 않고 일찍 그만두고 도를 즐기며 살았다고 한다.

묘지명에 담긴 이상

묘지명의 글을 지은 찬자撰者는 명망 있는 문인에게 글을 부탁하여 가문의 위신을 세우기도 했지만 친구나 가까운 친족이 직접 글을 써서 애도의 정을 전하기도 했다. 글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담백한 문체로 쓰였지만 그 안에는 남겨진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묘지명은 상례 절차의 일부로 정착되면서 고인을 '예에 맞게' 기리는 글이 되었다. 따라서 고인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묘지명 속 주인공들은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대체로 남성은 충직하고 학문에 힘쓰는 군자의 모습으로, 여성은 덕성과 정숙함을 갖춘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유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던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묘지명은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동시에 그가 속한 시대가 요구한 '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한 기록이었다. 나아가 개인의 생애를 통해 유학적 질서를 확인하고, 사회적 이상을 되새기는 하나의 문화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돌에 새긴 영원할 기억

묘지명의 주인공들 가운데는 역사서에 이름을 남긴 인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돌 위에 새겨진 기록 속에는 자식에게 한없이 사랑을 주던 어머니, 악기를 사랑했던 여인,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대와 문화를 달리하더라도 오늘날의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묘지명은 죽은 이를 위한 기록이자 오늘의 우리와 과거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개다. 묘지명의 말미에 기록되는 '語石千秋어석천추', '千齡不朽천령불후', '萬世不朽만세불후'와 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문구들은 단순히 돌의 물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가 잊히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당시의 바람이자, 후대와의 연결을 염원하는 마음이었다.

이번 전시는 묘지명이 보여주는 기록과 기억의 방식을 통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기억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원씨 부인 묘지명

하남현군(河南縣君) 원씨 부인(579–647)의 묘지명이다. 비문은 부인의 효성과 가정내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씨 부인은 삼종지도(三從之道)를 실천하며, 유복한 환경 속에서도 절제된 삶을 살고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유학이 사회의 중심 이념이었던 시대에 원씨 부인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2026년 박물관강좌 소개

2026년에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강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박물관강좌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문의: 02-790-5090).

특설강좌

박물관 특설강좌는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특설강좌1(한국사)

시간: 3/3 - 12/8.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33회

주차	주제
1	오리엔테이션(박물관사, 박물관회 소개)
2	한국사의 이해
3	한반도와 만주의 선사시대(구석기~청동기)
4	한반도와 만주의 초기국가들(초기철기~원삼국)
5	고대의 역사: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6	고대의 역사: 삼국의 경쟁과 통일전쟁
7	고대의 문화: 삼국의 불교문화와 반가사유상
8	고대의 문화: 삼국의 건축
9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선사와 고대
10	남북국시대의 역사: 발해의 역사
11	남북구시대의 역사: 통일신라의 역사와 후삼국시대
12	남북국시대의 문화: 통일신라의 불교미술
13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발해와 통일신라
14	고려시대의 역사I
15	고려시대의 역사II
16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고려
17	고려시대의 문화: 불교미술(조각, 불상, 탑)
18	고려시대의 문화: 불교미술(불화, 탱화)
19	고려시대의 문화: 도자기(청자)
20	조선시대의 역사I
21	조선시대의 역사II
22	고려·조선시대의 문화: 고려와 조선의 건축
23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조선
24	조선시대의 문화: 도자기(백자, 분청사기)
25	조선시대의 문화: 서예
26	조선시대의 문화: 회화(초상화, 인물화)
27	조선시대의 문화: 회화(산수화 풍속화)
28	한국의 고지도
29	한국근대사I
30	한국근대사II
31	한국근대의 문화: 근대 건축
32	한국근대의 문화: 한국근현대미술사
33	박물관의 우리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특설강좌2(세계사)

시간: 3/5 - 12/17.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33회

주차	주제
1	오리엔테이션(박물관사, 박물관회 소개)
2	세계사의 이해
3	인류 문명의 발생: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4	인류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지역
5	서양 역사와 문화: 지중해 문명과 헬레니즘 문화
6	서양 역사와 문화: 로마
7	서양 역사와 문화: 서양 건축사
8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그리스 로마
9	서아시아 역사와 문화
10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이슬람
11	중국 역사와 문화: 주·춘추전국·진·한
12	중국 역사와 문화: 위진남북조·수·당
13	중국 역사와 문화: 고대 미술
14	일본 역사와 문화: 고대
15	일본 역사와 문화: 중·근세
16	일본 역사와 문화: 중·근세 미술
17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
18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불교미술
19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형성과 유럽의 국가들
20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전성기
21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변동
22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 유럽의 종교미술 읽기
23	서양 역사와 문화: 상업의 발달과 경제 성장
24	서양 역사와 문화: 근대의 시작
25	서양 역사와 문화: 무역의 시대. 동·서 도자 교류사
26	서양 역사와 문화: 근대 음악사
27	중국 역사와 문화: 송·원
28	중국 역사와 문화: 명
29	중국 역사와 문화: 청
30	중국 역사와 문화: 중·근세 미술
31	일본 역사와 문화: 근대
32	일본 역사와 문화: 근대 미술
33	서양 미술 수용 양상에 따른 한국 전통 화단의 변화

* 상황에 따라 주제 및 일정, 강사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7월 중순~8월은 방학기간을 갖습니다.

연구강좌

1997년부터 특설강좌 수료생들이 결성한 스터디 모임들을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여러 학문 분야의 저명한 대학교수와 관련 전공학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특설강좌 수료생만 수강 가능하며, 연구강좌의 강의일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미감(美感): 한국의 수장가와 컬렉션들>

강좌소개 [한국 수장가들의 미감을 따라 살펴보는 한국 명품들]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미감(美感). 다양한 작품을 접하며 쌓인 미감은 '취향'이 되어 작품을 '소장所藏'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고려와 조선, 왕실과 사대부, 근대 수장가들의 소장품들, 미술관 박물관의 컬렉션을 살펴본다.

시 간 3/17 - 12/15. 격주 화요일 오전 10-12시. 15회 **교 수**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류승민(국가유산청) 외

<그림 속 숨겨진 이야기: 상징과 공간>

강좌소개 [작품 속 작가가 숨겨놓은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서양 미술사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그 안에 작가가 숨겨놓은 의도를 읽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작품 안에 그려넣은 상징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읽어내는 것은 작품과 깊이있는 대화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자.

시 간 3/10 - 12/8. 격주 화요일 오전 10-12시. 15회 **교 수** 안현배(미술사가)

<뛰어난 건축물 그리고 도시>

강좌소개 [건축사에 한 획을 그은 건축물들과 건축이 만든 도시의 풍경]
근대 건축부터 현대 건축까지 건축사에 한 획을 그은 건축사례와 건축이 만든 도시 풍경 속에 숨어있는 인문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여행을 떠나본다.

시 간 3/18 - 12/16. 격주 수요일 오전 10-12시. 15회 **교 수** 정태종(홍익대학교)

<지정학으로 바라보는 아시아와 한국>

강좌소개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아시아의 지정학- 가장 중요한 쟁점을 탐구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아시아를 조망한다. 현재 국제질서를 분석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며, 역사적 미스터리인 실크로드, 첨단 기술 시대의 디지털 지정학, 가장 뜨거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다룬다.

시 간 3/11 - 12/9. 격주 수요일 오전 10-12시. 15회 **교 수** 신범식(서울대학교)

<한국사개론: 해석과 논쟁의 우리 역사>

강좌소개 [우리 역사를 다각도로 해석하는 시선을 키운다]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우리 역사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논쟁되어왔던 주제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 역사의 다각도로 파악하고 각 쟁점들의 의미를 포착하여 한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시 간 3/19 - 12/17. 격주 목요일 오전 10-12시. 15회 **교 수** 권오영(서울대학교) 구난희(한국사중앙연구원) 외

<서양사를 움직인 14개의 가문>

강좌소개 [가문(家門)을 따라 살펴보는 서양사]
서양사의 주요 국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 가문 14곳을 권력 기반, 역사적 기여도, 문화적 상징성, 시대적 영향력에 따라 선정하여 각 가문을 중심으로, 정치, 문화, 경제 분야 주요 사건과 인물, 시대정신을 입체적으로 살핀다.

시 간 3/12 - 12/10. 격주 목요일 오전 10-12시. 15회 **교 수** 임승휘(선문대학교) 임동현(전북대) 외

테마강좌 각 테마강좌는 인물, 미술, 고전 등 하나의 테마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다룹니다.

<시네마 위인전>

강좌소개 [한번쯤 들어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인물들을 매체를 통해 다시 만난다]
- 과학, 철학, 음악, 수학, 미술, 문학. 여섯 개 분야 인물들의 생과 이론, 작품을 매체와 함께 살펴본다.
- 이론은 쉽게 풀어서, 미술·문학·음악 작품은 함께 감상한다.
- 상반기엔 16~19세기, 하반기엔 19~21세기 인물들을 시대순으로 다룬다.

시 간 상반기: 4/7 - 6/30.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12회
하반기: 9/29 - 12/15.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12회

교 수 과학: 남 영(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철학 : 한성일(서울대학교 철학과)
음악: 정경영(한양대학교 작곡과)
수학: 이광연(한서대학교 수학과)
미술: 정하윤(미술사가), 우정아(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문학: 권오숙(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과), 우석균(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강의내용

상반기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갈릴레오 갈릴레이
오페라 <오르페오> 몬테 베르디
소설 <소피의 세계> 블레즈 파스칼
영화 <더 밀 앤 더 크로스, 2011> 피터 브뤼겔
영화 <아폴로13, 1995> 르네 데카르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1996> 윌리엄 셰익스피어 등

하반기
영화 <프랑켄슈타인. 2025> 메리 셸리
영화 <샤인. 1997> 라흐마니노프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2022> 베른하르트 리만
영화 <베스트 오퍼, 2014> 구스타프 클림트
영화 <마리 퀴리, 2019> 마리 퀴리
영화 <오펜하이머. 2023> 로버트 오펜하이머 등

<유럽의 박물관·미술관 산책: 프랑스 남·북부>

강좌소개 [한 나라를 상징하는 문화의 척도, 미술관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한다]
- 유럽 각국 주요 미술관의 역사와 소장품, 최근 전시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다룬다.
- 프랑스 남·북부의 박물관, 미술관의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시 간 상반기: 3/18 - 6/10.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12회
하반기: 9/23 - 12/9.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12회

교 수 이 현(미술사가)

강의내용

상반기
스페인과 프랑스의 교집합 카탈로냐지역
옥시타니 지역의 중심지, 몽펠리에
지중해의 다문화 지역, 마르세유
현대미술 거장들의 요람. 모더니즘의 중심지, 니스
남프랑스의 현대미술재단들
액상 프로방스 등

하반기
오 드 프랑스: 노르망디와 벨기에 국경 사이 미술관들
플랑드르의 미인, 릴
메츠, 스트라스부르그, 콜마
르 아브르, 옹플레르, 에트르타
브르타뉴: 켈트문화의 지역, 캉페르
고갱의 흔적을 찾아서, 퐁다방 등

<논어: 삶의 방향을 찾아서>
<맹자: 삶의 의미를 찾아서>

강좌소개 [동양고전의 바이블, <논어(論語)>, <맹자(孟子)>의 원문을 읽는다]
- <논어>, <맹자>의 저술 및 성립 과정, 공자와 맹자가 활동했던 시대상황을 이해한다.
- 춘추전국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중요한 사건과 핵심 인물들에 대해 알아본다.

시 간 상반기: 4/9 - 6/25.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12회
하반기: 10/1 - 12/17.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12회

교 수 진성수(전북대학교)

강의내용

상반기
성인(聖人) 공자, 인간(人間) 공자
<논어>와 공자의 제자들
학이시습(學而時習): 배움의 기쁨, 나눔의 즐거움
회사후소(繪事後素): 내면의 선함, 외면의 세련됨
불치하문(不恥下問): 진정한 부끄러움이란? 등

하반기
맹자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맹자가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한 이유
맹자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의 허와 실
맹자의 민본사상과 왕도정치(王道政治)
호연지기(浩然之氣): 온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기운 등

모집안내

특설강좌 테마강좌 특강	모든 일반인, 박물관회 회원
연구강좌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
모집방법	홈페이지, 전화, 현장 신청
모집일정	2026년 1월부터. 강좌별 상이
전화신청	02-790-5090
홈페이지	www.fnmk.org (검색창에 '국립중앙박물관회')
방문접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층 101호 (평일 9~18시. 12~13시, 공휴일 제외)

강좌별 자세한 내용

강좌별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홈페이지의 '새 소식' 혹은 '교육(강좌 및 답사)')

궁금하신 점은 02-790-509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평일 9~18시 / 12~13시, 공휴일 제외)

홈페이지 공지 바로가기

2025 박물관강좌
설문조사

지난 5월, 2025년 박물관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호하는 강좌 시간, 요일, 관심있는 주제 등 강좌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질문1 어느 요일의 강좌를 선호하십니까?

답변

화요일	34.8%
수요일	31.9%
목요일	27.4%
금요일	5.9%

- 몇 년 동안 화, 수요일마다 강좌를 들었다.
- 화요일은 주 초반이라 여유가 있다.
- 수요일 강좌는 한 주의 중반쯤에 활력을 준다.
- 월, 금은 여행일정과 겹친다.

질문2 어느 시간대를 선호하십니까?

답변

오전	78.8%
오후	21.2%

- 오전에 강좌를 듣고, 오후 시간을 활용한다.
- 오전에 강좌를 들으면 하루 시작이 부지런해진다.
- 오후엔 퇴근길이 다소 혼잡하다.
- 오전엔 일정이 바쁘다.

질문3 매주 진행되는 강좌와 격주로 진행되는 강좌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답변

매주	41.4%
격주	58.6%

- 격주 강의는 여유롭고 일정 관리가 편하다.
- 매주 강의는 부담스럽다.
- 격주는 날짜가 헷갈린다.
- 격주는 배움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다.

질문4 강좌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변

강의주제	61.0%
선호 일정	15.3%
전시관련	1.0%
선호 시간대	6.5%
지인과 수강	9.8%
강사에 관심	6.3%

질문5 매년 비슷한 분야의 강좌를 수강하십니까 다른 분야의 강좌를 수강하십니까?

답변

비슷한 분야	35.0%
다른 분야	65.0%

-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한다.

질문6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까?

답변

동양사	17.3%
서양사	27.3%
동양미술사	11.8%
서양미술사	30.1%
문학(고전)	13.5%

질문7 같은 분야의 강좌라면 매년 동일 강사가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예: 한국미술 관련 강의라면 매년 같은 강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답변

같은 강사 선호	22.6%
다른 강사 선호	23.1%
상관없다	54.3%

- 실력있는 강사라면 상관없다.
- 같은 분야이지만 다른 강사의 강좌를 수강하여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싶다.

질문8 여러 강좌를 수강할 경우, 강좌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서로 연관된 주제	41.4%
같은 시간대여서 (다른 요일, 같은 시간대)	28.4%
종일 수강 가능 (같은 요일, 다른 시간대)	29.2%

- 관심있는 주제이고 일정에 맞으면 신청한다.
- 두 강좌 모두 한·일 수교 60주년 관련 수업이라 신청했다.

질문9 여러 강좌를 수강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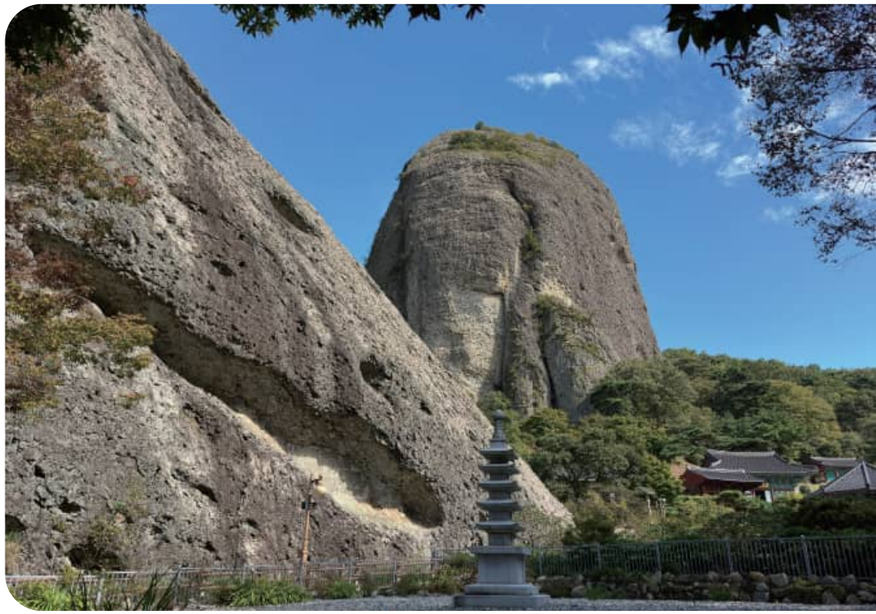
일정 상 어려움	50.5%
격주 출석을 선호	12.5%
학습에 부담	9.9%
수강료 부담	12.1%
관심 없는 주제	15.1%

설문조사에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많은
수강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박물관강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을 정기답사 스케치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선
사계절 정기답사를 떠납니다.
지난 9월엔 강원 원주,
10월엔 전북 무주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날들의 모습들을 보여드립니다.
2026년에도 정기답사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켈트의 바람이 부르는 곳으로…

아일랜드·스코틀랜드 기행

한명호 회원

더블린 공항을 나선 순간, 나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무더운 유럽과 전혀 다른 날씨, 약간 작은 키에 짙은 머리색을 한 사람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켈트족의 영혼이 살아 숨 쉬는 신화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제1장: 더블린, 문학의 도시에서 마주한 아일랜드의 혼

더블린은 제임스 조이스의 『Dubliners』에 묘사되어 있는 자존심, 억압, 친절함, 슬픔, 위트가 뒤섞여 있는 느낌 그대로였다. 트리니티 칼리지의 고색창연한 도서관에서 『켈스의 서』를 마주했을 때, 나는 1200년 전 수도사들이 양피지 위에 금빛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그려 넣은 켈트족의 문양들은 장식이 아닌 기독교화된 켈트족의 우주관이었다.

문학박물관으로 예이츠, 조이스, 오스카 와일드, 조지 버나드 쇼의 흔적을 따라갔다. 이 작은 섬나라에서 많은 문학 거장들을 배출한 것은 아일랜드인들이 겪은 800년간의 영국 지배, 대기근, 독립투쟁… 이 모든 아픔이 그들의 언어를 더욱 아름답고 깊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리피강변에서 본 관선(棺船)은 아일랜드 고난의 결정판이었다. 감자역병으로 닥친 기근으로 100만명이 죽고 200만명이 고국을 등진 참상을, 강변에 있는 동상(굶은 채로 이민선을 타기위해 160마일을 걸어온 사람들의 동상)들이 증언해주고 있었다. 식민지의 운명은 어디서나 같은 것인가?

실패한 1916년 부활절 봉기의 지도자들이 처형당한 칼마인햄 감옥에서는 아일랜드 독립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위스키박물관에서 전해준 아일리쉬 위스키에 대한 자부심은 이런 역사의 아픔을 역설적으로 대체하는 듯했다.

제2장: 서부 아일랜드, 대서양이 빚어낸 장엄한 서사시

글렌달로 호숫가의 수도원을 거쳐 도착한 새넌강가 번래티성의 연회장에서는 미드(벌꿀술)를 마시는 12세기 노르만족 정복자들의 집회가 보이는 듯했다. 날씨가 급변하면서 간신히 도착한 클리프 모허에서는 아쉽게도 바람, 비, 안개 때문에 대서양을 막아선 214미터 높이의 수직 절벽을 보지 못했지만 왜 이 험한 기후가 아일랜드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벤불벤 산을 바라보며 슬라이고로 향하는 길에서, 나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영국계로 개신교도로 살아낸 예이츠의 고뇌와 문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신화를 사랑하면서 아일랜드 문학에 전념하였고 어린시절을 보낸 슬라이고의 드럼클리프 교회의 묘지에 "Cast a cold eye / On life, on death. / Horseman, pass by!"라는 그의 묘비명으로 남기고 아일랜드인으로 죽은 진정한 문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다음날 북아일랜드의 북쪽 해안의 자이언츠 코즈웨이에서 본 신화속의 거인 핀 맥쿨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돌길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풍경이었다. 4만 개가 넘는 현무암 기둥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며 거대한 계단을 만들고, 6각형, 5각형, 4각형의 기둥을 이루어 늘어선 모습은 자연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대한 판타지 예술품이었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Giant's Causeway의 절벽과 주상절리

ipad로 그린 예이츠 무덤과 드럼클리프 교회

제3장: 북아일랜드의 깊은 상처, 분단된 섬의 아픔

북아일랜드는 현재진행형 갈등의 현장이다. 데리의 성벽에는 400년 전부터 이어진 영국에서 온 개신교와 아일랜드 카톨릭간의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프리데리 박물관에서 본 '피의 일요일' 사진들은 최근까지도 이어진 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정의를 보면서 언제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신화가 숨쉬고, 문학이 넘치는 이곳에 아픔의 역사가 수 백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상처와 동떨어지게 타이타닉호를 건조할 만큼 산업혁명의 수혜도시로 번성하였다는 벨파스트에서는 이 도시의 발전 뒤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많은 갈등, 아픔이 오버랩 되는 듯했다.

아일랜드를 떠나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생각에 잠겨보았다.

나의 대답은 "아름다우면서 슬픈 나라, 그리고 신화와 전설을 굳게 믿는 순수한 켈트 사람들이 사는 복잡한 나라"였다. 부족단위의 문화를 지니고 싸움보다 타협을 권하는 전통 브레혼 법으로 살아가던 순진한 켈트 사람들이 왕권과 귀족제도로 조직화된 앵글

로 색슨과의 투쟁에서 이기기 어려웠다, 또 카톨릭을 받아들인 후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고지식함은, 정치적 이유로 개신교로 개종한 영국인들에게는 탄압의 먹이감이 된 것이다. 잉글랜드인들에게 아일랜드 켈트인과는 인종적 이질감이 강했고, 아일랜드는 그저 다스리고 착취하는 대상일 뿐이었다. 잉글랜드 옆에 있는 것이 아일랜드에게는 천형이 되었다.

거리풍경, 언어, 생활 스타일은 잉글랜드와 같아 보이지만 뼛속까지 게일/켈트/카톨릭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현재진행형인 갈등, 독립했지만 아직 독자적이지 못하는 복잡성...제삼자가 이해하기 참 어렵다.

제4장: 글래스고, 산업과 예술이 만나는 도시

스코틀랜드 땅에 첫발을 디딘 곳은 글래스고였다. 이 도시는 로마제국도 정복하지 못한 픽트족의 후예들이 세운 곳이다. 성 뭉고(St. Mungo)가 6세기에 꿈에서 천사를 만나 세웠다는 글래스고 대성당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장로교회를 지켜낸 스코틀랜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글래스고의 진정한 매력은 19세기 말 찰스 레니 매킨토시가 창조한 예술 세계에 있었다. 윌로우 티룸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100년 전에 창조된 모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얀색을 기조로 한 인테리어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되었고, 키 높은 의자들은 기능성과 예술성을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애프터눈티를 즐기며 나는 스코틀랜드만의 독특한 미적 감각을 느꼈다. 화려함보다는 절제를, 장식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결코 차갑지 않은 따뜻함이 있었다.

켈빈그로브 미술관에서는 글래스고의 문화적 성숙도를 확인했다. 렘브란트, 고흐, 마티스 같은 거장들의 작품과 스코틀랜드 작가들의 작품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전시작품 대부분이 담배무역으로 큰 돈을 번 담배의 제왕 같은 상인들이 기증한 개인 컬렉션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부와 지위를 상속하는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폐해에 빠지지 않고 문화와 교육으로 극복한 스코틀랜드만의 지혜였다.

제5장: 하이랜드, 전설이 살아 숨 쉬는 땅

글래스고에서 A82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통로였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현대 문명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천년 넘게 변하지 않은 원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하늘은 점점 낮아지고, 구름들이 산봉우리를 스치며 지나가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산발적으로 새어 나와 대지를 얼룩덜룩하게 물들였다.

로몬드 호수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 민요 "Loch Lomond"를 떠올렸다. "You take the high road and I'll take the low road..."라는 애절한 가사는 1746년 컬로든 전투에서 패배한 자코바이트 반란군들의 이야기였다. 한 사람은 처형되어 영혼이 되어 '낮은 길'로, 다른 한 사람은 살아서 '높은 길'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켈트족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보다 빨리 고향에 도착한다고 믿었다고 한다.

하이랜드의 정수인 글렌코는 영화 007 스카이폴의 배경이기도 하다. 수많은 U자형 계곡과 호수들이 만들어내는 파노라마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곡에는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인 '글렌코 대학살'의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1692년 2월 13일 새벽, 맥도널드 클랜의 환대를 받으며 열흘간 머물렀던 캠벨 클랜의 군인들이 갑자기 칼을 빼 들고 주인들을 학살했던 그 배신의 현장... 세자매봉(Three Sisters)은 그날 밤 불타는 마을을 지켜본 슬픈 증인이었다.

하이랜드에서 동부 로우랜드로 흐르는 스페이강은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고생대 산맥에서 유래한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빙하가 깎아낸 계곡을 따라 헤더와 칼레도니아 파인 숲을 지나온 이 강물에는 수억 년 숙성된 대지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이 물이 보리몰트에 녹아들면서, 수억 년 된 석탄층을 태운 연기를 몰트에 입혀 스모키한 맛을 빚어낸 서부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와 완전히 다른 스페이강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6장: 세인트 앤드류스와 에든버러, 역사와 전통의 숨결

하이랜드에서 로우랜드로 내려오면서 나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의 절묘한 균형을 알아차렸다. 하이랜드가 프라이드와 정신을 담당한다면, 로우랜드는 번영과 풍요를 책임진다. 마치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듯, 이 두 지역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스코틀랜드를 완전한 나라로 만들고 있었다.

세인트 앤드류스의 올드 코스에서 인상 깊게 본 것은 개방성이었다. 누구나 코스를 구경할 수 있고, 클럽하우스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코스의 품위는 절대 잃지 않았다. 소박한 라커룸을 보며 나는 진정한 품위란 화려함이 아니라 전통과 정신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마침내 도착한 에든버러에서 나는 "이곳에서는 누구나 소설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3억 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캐슬 록 위에 자리잡은 에든버러 성, 그 아래로 뻗어 내려가는 로열 마일의 중세 건물들... 모든 것이 중세로 돌아간 듯한 판타지였다. J.K. 롤링이 엘리펀트 카페에서 해리포터가 빗자루를 타고 날라가는 구상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놀랍지 않았다.

글렌코 하이랜드 풍광. ipad 그림

스코틀랜드는 많은 역사적 성취를 이룬 곳이다. 에든버러가 '북방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유는 18세기 데이비드 흄, 아담 스미스, 로버트 번스 등 걸출한 사상가들을 배출하였고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전화기의 벨, 페니실린의 플레밍, TV의 베어드 등 많은 발명가가 나온 것은 스코틀랜드인들의 창의성과 탐구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칼턴 힐에서 바라본 에든버러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석양 빛을 받은 에든버러 성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나는 이 성이 로마군의 침입, 바이킹의 약탈, 잉글랜드와의 전쟁, 종교개혁의 소용돌이를 모두 이겨내고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음에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에필로그: 켈트의 바람이 남긴 것들

더블린에서 시작해서 에든버러에서 마무리된 이 여행에서, 나는 작은 나라들이 가진 놀라운 힘을 발견했다. 아일랜드는 800년간의 지배를 견디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고,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합병되었지만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종교와 정체성를 지켜내었다.

아일랜드인들이 문학을 통해 자신들의 아픔을 승화시킨 것, 글래스고의 부호들이 예술품을 시민들과 나눈 것, 매킨토시가 보여준 기능과 미를 조화 같은 것들이 진정한 문화의 힘을 보여주었다.

에딘버러 성, ipad 그림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스코틀랜드 해안선은 구름 속으로 아련하게 사라져 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이랜드의 웅장한 산맥과 에든버러의 고색창연한 성과 글래스고의 활기찬 거리들,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아픔과 더블린의 문학적 향기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원더랜드 WONDERLAND

2025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마나모아나展 관람기

문정원 회원

지난 5월, 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뉴질랜드 <마오리 카파 하카> 공연이 있었습니다. 기하학적 문양의 문신을 한 구릿빛 피부의 건장한 전사가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밀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장면을 기대하며 참석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공연예술이 실제로 펼쳐지니 정말 많았던 관람객들의 눈과 귀가 한순간 무대를 향했습니다.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에 대한 관심이 너른 마당에 울려 퍼진 환호와 박수소리 따라 커졌습니다. 포스터에서 꿈틀거리는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나아가는 돛단배를 떠올리게 하는 '마나 모아나'의 글자체와 이국적인 전시품들의 이미지도 시선을 끕니다. 폴리네시아어로 마나mana는 '신성한 힘', 모아나moana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바다로 이루어진 푸른 대륙, 오세아니아를 소개하는 전시는 제목도 매혹적입니다.

(왼쪽부터)
쌍동 카누, 와카 타우루아의 모형
항해용 나무 막대 지도, 레벨립 또는 메도
의례용 노

물의 영토에서

전시의 시작은 미디어 아트입니다. 발밑으로 카누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황금빛으로 찬란한 한낮의 바다, 반딧불처럼 깜박이는 플랑크톤으로 수놓인 밤바다가 장관입니다.

철썩, 철썩 파도 소리를 뒤로 하면 영상이 아닌 실물 카누가 보입니다.

견고하고 날렵해 보이는 소형 카누와 함께 앙증맞은 크기의 쌍동 카누 모형, 산호, 문어 촉수 같은 자연물과 신화 속 인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카누 장식물과 부속품인 노가 여럿입니다.

실제 이백여 명이 탈 만큼 큰 규모로도 제작되었던 카누는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 신화에서 조상과 신들은 카누를 타고 세상을 열었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며칠, 때론 수백 일이 걸렸을 섬과 섬 사이의 이동과 정착은 어떠했을지, 망망대해 속으로 생각이 빠져듭니다.

마셜 제도에서는 '리-메토'라 불린 바닷사람이 조개껍데기와 나무 막대로 섬, 파도, 조류를 표시한 항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암기한 후 지도는 뭍에 두고 항해에 나섰다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자연을 엮어낸 '손 안의 세상'이다 싶습니다.

(위에서부터)
카누 뱃머리 장식
카누 장식
목침
사람 얼굴과 메기 머리를 조각한 갈고리
골 뛰기 의식에 등장하는 추브완 가면
마을의 중요 회의를 위한 연설대, 카와 테게트

삶이 깃든 터전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지진대에 놓인 섬들은 '검은 섬들'이라는 뜻의 '멜라네시아'로 불립니다. 멜라네시아 뉴기니에서는 마을 가운데에 '의식의 집(남자들의 집)'을 건설했습니다.

집단의 생존에 필요한 힘을 지닌 조상은 가면, 조각상, 카누, 방패, 악기 등으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조상이 '깃든' 다양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공동체가 치르는 중요 의례를 위한 장소가 의식의 집입니다.

건물 정면은 여성의 얼굴을, 건물 아래에는 식물섬유로 만든 치마를 둘러 여성의 몸을 표현한 의식의 집은 씨족 최초 여성 조상을 상징합니다. 여성과 성인식을 거치지 않은 소년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공간 자체가 여성이기에 남성의 점유는 여성과 남성의 결합을 뜻하고 이를 통해 씨족의 생명력이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지붕 용머리를 꾸민 조각, 연설대, 갈고리 등은 나무가 주재료로 섬세하게 조각 후 색을 칠했습니다. 독수리, 메기, 악어 같은 동물과 사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으로 기능성보다 상징성이 부각됩니다.

의식에 사용된 가면들은 눈이 4개거나 코가 과장되게 표현되어 기묘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 얼굴에 가까운 추브완 가면도 예외는 아닙니다. 추브완은 '골 뛰기' 의식 전 안전을 위해 여성과 아이들을 쫓아내는데 쓰인 손잡이 달린 가면입니다. 골 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30미터 높이의 탑에서 덩굴줄기로 발을 묶고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의식으로 현재의 인기 스포츠 번지점프의 기원입니다. 추브완을 보면 절로 뒷걸음치게 됩니다.

세대를 잇는 시간 속으로

북쪽 하와이. 동쪽 이스터, 서쪽 뉴질랜드를 꼭지점 삼은 거대한 삼각지역이 폴리네시아입니다. 섬들이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만 신화, 예술, 언어 등을 공유하여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입니다. 여러 공통점 중에 독특한 시간개념이 있습니다. "과거는 눈앞에, 미래는 등 뒤에 있다." 시간은 몸을 따라 흐르는 감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시간관이 전시품의 설명에서 빠지지 않는 조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우리의 유교적 관념인 조상숭배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조상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도 의례, 예술을 통해 살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오리족 전설에 의하면 티키tiki는 최초의 인간이자 신성한 존재입니다. 폴리네시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사람 형상의 조각상은 티키, 티이, 키이 등으로 불립니다. 이를 목걸이로 한 장신구 헤이티키('헤이'는 목에 걸다는 뜻)를 착용하면 마나를 지니고, 생명력과 조상에 대한 기억인 '마우리mauri'를 품습니다. 연옥재질의 헤이티키는 부적으로도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새 같기도 태아 같기도 한 헤이 티키는 고개를 갸웃하며 큰 눈망울로 낯선 우리를 응시합니다.

폴리네시아 세계관에서 중요한 마나에 그림자처럼 함께 하는 것이 타푸입니다. 마나는 신성한 세계에서 비롯하여 인간 세계의 사람, 장소, 사물에 깃들고, 마나가 깃든 대상은 타푸tapu가 됩니다. 타푸는 접촉이나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인 영어의 타부taboo와 우리말 '터부시하다'의 어원입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마나와 권위의 상징물인 곤봉, 신성한 의미를 부여받은 부채 등 찬찬히 살피면 구석구석 사람 얼굴, 티키가 보입니다. 구상과 추상사이를 너울처럼 넘나드는 티키는 많은 전시품에서 단독으로 때론 이중삼중으로 표현되어 초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위에서부터)
혈통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목걸이, 헤이 티키
무기이자 권위를 상징하는 양면 곤봉(부분)

섬...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벽 가득 장신구가 놓여 있습니다. 섬나라답게 조개껍데기, 고래 이빨, 거북 등딱지 등이 많이 쓰였습니다. 손의 기억과 세대의 기술을 담은 장신구는 꾸밈을 넘어 통과의례,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조상과 남성의 세계를 상징하는 악어 형상의 화려한 머리장식을 씁니다. 남편 잃은 여성은 유럽산 진주를 두른 등나무 껍질 머리 장식을 합니다. 둘 다 정교하고 아름다워 마음을 사로잡지만 쓰임새는 낮과 밤처럼 대조적입니다.

지구본을 돌리며 보는 태평양은 그저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에 불과 했습니다. 자연환경이 빼어나게 좋고 대부분 크리스마스가 여름이고, 우리의 원양어선이 큼지막한 참치를 잡아 올리는 곳. 겨우 단편적인 정보 몇 개가 전부였던 오세아니아를 이제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고인과 유족의 머리카락을 모아 진주로 장식한 주머니에 넣어 간직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자연과 조상이 하나였던 그들의 세계관과 이어서 기억합니다. 높이가 꽤 돼서 누우면 불편했을 목침은 마나가 깃든 인간의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 하려는 타푸 때문이려니 짐작해봅니다. 18세기 초반에서 20세기에 걸쳐 제작된 전시품이 보여주는 뛰어난 완성도와 미감의 동시대성을 통해 공동체의 상징으로 발전해온 오세아니아 예술과 철학을 엿보아서입니다.

전시 '마나 모아나'는 놀라움과 경외로 가득 찬 원더랜드, 오세아니아의 멋진 안내자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신부의 머리장식, 아브위삭
목걸이 또는 가슴 장식, 니예
향유고래 이빨로 만든 목걸이, 시시
남편 잃은 여성의 머리 장식

*모든 전시품의 소장처는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물관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전경

일상 속에서 만나는 천 년의 아름다움, 고려청자박물관

조은정 고려청자박물관 전시운영팀장

강진 용운리 10-4호 청자 가마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는 고려시대에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터가 200여 개소가 남아 있는 사적이다. 이 사적의 중심에 고려청자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청자 가마터들 속에 지어져서 그런지 건물의 외형은 가마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다. 박물관을 들어서기 전 입구 왼편 외벽은 수백 점의 청자 도판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보상화 넝쿨을 배경으로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 어우러진 문양이어서 이곳이 고려청자 생산의 중심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청자 도판은 1997년 박물관 개관 이전에 재현 청자를 생산하는 박물관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박물관은 크게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기획전시실로, '꽃과 청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전시실이다. 이곳은 고려청자의 미학과 그 안에 담긴 계절의 상징을 꽃 문양을 통해 조명하는 공간으로, 은은한 꽃 향기를 푸른 비색의 청자에 아로새겨 영원히 간직하고자 했던 고려 장인들의 예술적 감각과 철학을 느낄 수 있다. 봄을 대표하는 모란과 작약은 화려하고 풍성한 자태와 아름다운 색으로 부귀와 영화, 그리고 생동감을 상징하며 활짝 핀 모습과 씨방까지 세밀히 표현되어 청자에 봄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여름의 연꽃은 청정과 진리, 재생을 의미하며 넓게 펼쳐진 연잎과 연밥까지 이어지는 생장 과정을 통해 불교와 유교 모두에서 존중받은 정신세계를 담아냈으며, 또한

기획전시실('꽃과 청자')

버드나무와 갈대, 오리와 원앙이 어우러진 물가풍경은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자연의 한 장면을 상감청자에 구현하였다. 늦가을 서리를 맞으며 고결하게 피어나는 국화는 군자의 덕성과 높은 기상을 상징하며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청자에서는 당초문과 절지문으로 자주 표현되어 꽃송이와 잎을 사실적으로 새기거나 간략한 상감 기법으로 장식하여 소담한 가을의 정취를 전한다.

갈대무늬 사이호

모란무늬 정병 (1)~(2)

이 전시실 한가운데에는 1157년 고려 의종의 별궁인 수덕궁의 태평정 지붕에 올리기 위해 제작된 <청자양각해석류화문'大平'명기와>가 놓여 있는데, 이 유물은 기와의 윗면에 정토화생을 상징하는 해석류화문을 새기고, 내면에는 '大平'이라는 명문을 음각한 희소한 기와로서 고려 왕실 건축에 청자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이다. 특히 2019년 강진 사당리 요지에서 출토된 사실은 고려 중기 강진이 왕실 청자의 핵심 생산지였음을 보여주며, 청자가 단순히 생활 용기를 넘어 건축재로까지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사례로서 도자사와 건축사 연구 모두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에 전라남도 유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꽃과 청자」 전시실은 모란, 연꽃, 국화와 같은 계절의 꽃 문양과 함께 태평정의 청자기와를 통해 고려인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지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청자 속에 피어난 꽃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닌 삶의 철학과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담은 예술적 언어임을 일깨운다.

청자양각해석류화문'大平'명기와 (1)

청자양각해석류화문'大平'명기와 (2)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 모형

청자 운반선 안의 청자 꾸러미와 목간(복제품)

기획전시실에서 2층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청자 운반선이다. 이 배는 2007년 충남 태안 대섬 인근 해저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을 4분의 1 크기로 축소해 복원한 모형으로, 강진에서 생산된 청자가 개경 왕실로 공급되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는 귀중한 단서다. 발굴 과정에서 '탐진(耽津)'이라는 강진의 옛 지명이 새겨진 목간이 함께 확인되면서 강진의 청자 가마터가 관요(官窯)로서 왕실에 청자를 납품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배에서 출수된 청자들은 현재 1층 특별전시실에서 '고려청자 보물선'이라는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전시실에는 충남 태안 죽도 인근 해저에서 인양된 수많은 고려청자가 전시되어 있으며,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계율리·사당리 등 주요 요지의 출토품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어 강진 요지가 고려청자의 중심 생산지였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청자 운반선에서 나온 청자들은 연꽃, 앵무, 파도, 모란, 국화, 초화문 등 다양한 문양과 양각·음각·상감·철화·백화 등 다채로운 기법으로 장식되어 고려 장인들의 탁월한 기술과 미감을 잘 보여준다. 또한 발우와 함께 항아리, 접시류 등 선원들의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유물도 다수 발견되어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고려인의 삶과 교역의 단면까지 전해준다. 무엇보다도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바닥을 평평하게 설계한 선체에는 무려 2만 3천여 점의 청자가 실려 있었으며, 나무 막대와 짚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한 덕분에 수백 년 동안 갯벌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온전한 상태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청자 운반선은 고려청자가 바다를 건너 왕실과 귀족에게 전해지던 생생한 현장을 되살려준다.

특별전시실('고려청자 보물선')

'탐진'이라는 지명이 새겨진 목간은 강진에서 생산된 청자가 왕실로 직접 운송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고려청자 보물선」 전시실은 이렇게 고려인의 삶과 신앙, 예술과 교역이 함께 실려 있던 바닷길의 이야기를 담아 천 년 전 바다를 건너던 고려청자의 여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2층 상설전시실

꽃모양 접시

용모양 손잡이가 있는 잔과 받침

다시 청자 운반선이 있는 2층으로 돌아오자. 운반선을 지나면 2층 상설전시실이 펼쳐진다. 둘러보면 고려청자의 시작부터 제작 기술의 발달, 비색청자의 완성과 상감청자의 정수, 그리고 문화의 확산과 변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10세기 강진에서 처음 청자가 만들어진 배경에서부터 12세기 비색과 상감이라는 정점, 13세기 청자 문화의 확산, 14세기 이후의 변모와 쇠퇴까지 고려청자의 역사적 흐름과 예술적 성취를 시대순으로 보여주는 전시실이다.

고려청자박물관은 2017년에 국가귀속유산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강진 지역의 발굴품들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 2층 끝 전시실에서는 이렇게 이관받은 다양한 유적들 중 '사당리 43호', '사당리 20호', '사당리 33호', '월남사지'의 출토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고려 12세기 전반에서 중반의 청자들로 다양한 청자의 종류와 문양, 제작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중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청자가 있는데, 바로 원숭이 모양의 연적이다.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조형미를 통해 고려 장인의 뛰어난 솜씨와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원숭이 모양 청자 연적, 강진 사당리 20호 가마터 출토 (1)~(3)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고려청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천 년 전 사람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예술의 결정체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박물관은 매년 다양한 특별전시를 마련해 새로운 시선으로 고려 문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1월에 개막하는 특별전에서는 기존 '월남사지'의 소규모 전시를 더욱 확장하려 한다. 보월산(월출산의 다른 이름) 자락에 자리한 이 사찰은 고려 불교문화의 중심이자, 다수의 중요한 유물이 발굴된 현장으로, 이번 특별전에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된다. 우리 고려청자박물관은 발굴조사로 확인된 다양한 유물과 그 속에 담긴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미의식을 통해 월남사지가 지닌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준비한 '보배로운 달빛, 월남사' 특별전은 고려시대 불교 미술과 사찰 문화를 생생히 증언하는 장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늘에서 바라본 피라미드

나일강의 선물, 고대 이집트 문명과 유적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아프리카 북동부 고원에서 발원한 나일강은 6,700킬로를 흘러 이집트를 지나 지중해로 흘러든다. 태곳적부터 7, 8월이면 우기에 들어 강물은 석 달 동안이나 범람하여 강변의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주니 우기만 끝나면 농사에 최적의 환경이 되풀이되었다. 비록 강 건너 서편은 광대한 사막이지만 동편의 땅은 온갖 농산물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살림은 풍족했고 강변에는 곳곳에 도시와 마을이 생겼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동편의 농지와 마을을 '생명의 땅', 서편의 사막을 '저 세상의 땅'이라 부르며 무덤과 피라미드는 모두 강 건너 서편에 조성하게 되었다.

또한 나일강은 배를 띄우기만 하면 강물 따라 저절로 지중해 바다로 나가고 늘 북풍이 불기 때문에 돛을 올리기만 하면 배는 상류로 되돌아오기 쉬웠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 덕택으로 이집트는 풍부한 물산은 물론 머나먼 지역까지의 수상, 해상교역도 순조로워 일찍이 문명국으로 부상하였으니 헤로도투스의 명언처럼 이집트 문명은 본질적으로 '나일강의 선물'이었다.

예로부터 이집트에서는 강변을 따라 상이집트, 하이집트 등 두 지역이 존재하여 왔으며 이미 두 지역에서는 초기 군소 왕국의 '선왕조시대'가 있었다. 이후 B.C. 3150년에 이르러 상하 이집트는 나르메르 왕에 의하여 통합되고 이로부터 시작된 통일왕조는 400여 년 동안 왕업이 지속되었는데 이 시기를 '초기왕조'시대라 부른다.

이집트 학계에서는 왕가의 혈통이 친족이나 사위 등으로 교체되면 새로운 왕조의 순번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고대 이집트는 초기왕조부터 로마제국의 침공으로 이집트 왕국이 사라질 때까지 약 3000년 동안 32왕조가 존속하였는데 이 기간은 다시 '초기왕조',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말기왕조', '프톨레마이오스왕조' 등으로 나뉜다.

이집트 문명의 상징인 피라미드는 고왕조의 업적이다. 고왕조는 B.C. 2686년, 제3왕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다. 제3왕조의 초대 군주 조세르는 이집트에서 최초의 피라미드를 세웠으며 이로부터 500여 년간 지속된 고왕조는 피라미드의 전성기였다. 피라미드는 왕권의 상징이자 진시황의 불로초와 같은 영생 기원의 산물이다. 다만 육신이 그대로 존속해야만 혼이 다시 들어와 영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시신을 건조시켜 영구히 보전하는 미이라가 만들어지고 무덤에 안치되었다. 피라미드가 등장하기 이전을 '초기왕조'라 하는데 당시의 무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생전의 가옥 같은 방을 여럿 만들고 지상에는 한 단의 커다란 석단이 조성된 '마스타바'라는 건조물이었다.

고왕조의 초대 군주 조세르 왕은 이러한 마스타바를 기본으로 하여 지상에 거대한 6단의 석단묘를 축조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로 등장한 다단식 피라미드이다. 이후 스네푸르 왕 때는 더욱 규모도 커지고 다단식이 아닌 완전 경사면의 피라미드로 발전하였는데 처음에는 석재의 과부하 문제로 경사면이 꺾이는 굴절형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가 훗날에는 완벽한 피라미드의 축조에 성공하였다. 이로부터 피라미드의 전성시대가 열려 특히 기자 지역에 세워진 쿠푸, 카프레, 멘카우레 등 3왕의 피라미드에서 절정을 이룬다.

조세르 왕 피라미드(다단식) 폭 120m, 높이 62m
(B.C.2668-B.C.2649), 카이로

그중에서도 지상 최대의 걸작은 쿠푸왕의 피라미드로 밑변이 240미터에 높이가 147미터이며 2.5톤 돌덩이 230만 개, 총중량 600만 톤의 구조이다. 그리고 피라미드 표면에는 원래 매끈한 백색 석회암 마감을 하였으나 지금은 벗겨지고 없다. 다만 옆에 있는 카프레 왕 피라미드 상부 외벽에는 백색 석회석 표면 장식이 남아 있어 원래 피라미드는 눈부신 백색 금자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카프레 왕 피라미드와 스핑크스(B.C.2570년 경), 기자

피라미드 내부에는 통로, 미라를 안치하는 현실, 내부 공간, 석재 하중 분산 장치 등 정밀한 구조 설계는 물론 석재 운반, 가공, 축조 공법 등의 수수께끼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류 역사상 최대 건축물이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철기시대도 도래하지 않았던 시기에 백여 기가 넘게 축조되었다는 사실이 실로 불가사의하다. 축조 과정에서는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주변에는 장례와 제사를 치르던 장제전과 왕비 및 가족의 소형 피라미드도 함께 조성되었다. 이와 아울러 피라미드 무덤군을 수호하는 인면수신(人面獸身)의 거대한 스핑크스가 자연 바위산을 깎아 조성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왕조는 멀리 상 이집트로 천도한 수도 테베(룩소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파라오의 장제는 피라미드 대신 바위산의 암벽을 뚫고 내려가 화려한 무덤을 조성하는 암굴묘가 성행하였다. 장제에 들이는 경비도 줄이고 도굴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암굴묘가 밀집되면서 주변은 '왕가의 계곡'이란 별칭이 붙게 되었고 도굴 행위도 여전하여 심지어는 도굴로 먹고 사는 마을이 형성될 지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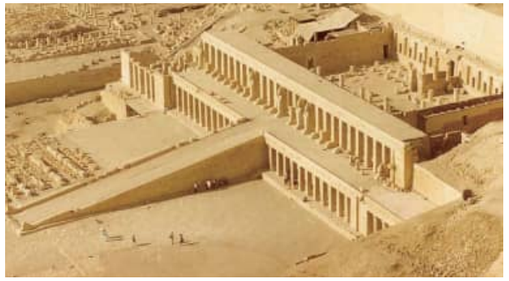
왕가의 계곡

그런데 1922년 이곳에서는 파라오의 무덤 하나가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이 바로 18왕조의 파라오 투탕카멘(B.C. 1334 - B.C. 1325 재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 쪽 다리가 부자유스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 불과 10세에 왕이 되어 9년 만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이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이 고스란히 발견되면서 그간 그림으로만 보아왔던 당시 왕가의 물건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다. 그가 타던 수레, 의자, 가구, 그림 그리고 유명한 황금가면 등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무명이었던 왕이 오늘날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다. 그러나 오랜 근친혼의 결과 어린 투탕카멘 왕은 태생부터 불구자여서 많은 지팡이가 무덤에 남아 있었고 그의 두 딸은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사생아가 된 채 미이라로 발견되는 등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왕가의 화려함 속의 비애가 서려 있었다.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

중왕조에서는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피라미드가 사라지자 이를 대신하여 국왕의 권위를 신전 건축으로 과시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나아가 문명의 최전성기인 신왕조(B.C.1550 - B.C. 1069) 시대에는 이집트가 누비아 및 중동아시아 등 국외로 세력을 확장하고 교역도 왕성하게 발전하였는데 이와 함께 대규모의 신전 건축도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시기를 거쳐 간 파라오 중에 중요 인물로는 먼저 핫셉수트 여왕(B.C. 1504 - B.C. 1483 재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여왕의 재위기에는 최대의 영토와 풍요로운 국가 경제를 누렸는데 이러한 자신의 위상을 피라미드 대신 대규모의 신전 건축으로 과시하였다. 현재까지도 잘 남아 있는 핫셉수트 장제전(장례를 위한 신전)은 단정하고 절도 있는 건축미를 남긴 이집트 고대 건축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신전 건축은 아부심벨 신전, 카르낙 신전, 룩소르 신전 등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핫셉수트 여왕 장제전(B.C. 1483), 룩소르

신왕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제19왕조의 제3대 파라오인 람세스 2세(B.C. 1303-B.C. 1213)로, 66년간을 왕위에 군림했던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군주였다. 특히 그는 서아시아 원정에서 히타이트와의 17년간이나 지속된 카데시 전투 끝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상호 불가침 국제평화조약을 체결한 사실로도 유명하며 자신의 위업을 대규모 신전 건축에 쏟아 붓고 생전에도 이미 신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신상과 함께 배치하여 신왕동격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아부심벨 신전은 남부 변방으로 향하는 아스완 지역에 산을 깎아 만든 신전으로 이 건축물은 신전 건축인 동시에 람세스 2세 자신의 형상을 거대한 조각으로 과시한 점이 주목된다. 남방의 누비아 등 변방 외족을 향해 함부로 덤비지 말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카르낙 신전은 현존하는 지구상의 신전 가운데 최대 규모의 신전이다. 현재의 신전은 신왕조 초창기부터 1500년 후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계속 세워진 10개의 문, 제18왕조의 투트모세 1세와 핫셉수트 여왕의 오벨리스크 및 신전, 제19왕조 람세스 왕가의 대열주실과 신전 등이 남아 있다. 특히 높이 약 23m의 석주 134개가 늘어선 대열주실은 핫셉수트 여왕의 오벨리스크와 더불어 지구상 어느 신전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하다. 또한 이 신전은 룩소르 신전과 연결되어 있다. 룩소르 신전은 제18왕조의 아멘호테프 3세가 건립하고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가 중축하였는데 카르낙 신전으로 향하는 참배 길에 도열된 수많은 스핑크스가 인상적이다.

카르낙 신전

고대 이집트 문명은 상상을 초월한 인류 불가사의의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은 웅장하고 절도 있고 화려한 기념물 내외부에 조성사연, 국왕의 치적, 역사와 풍습 등 수많은 내용을 그림과 글씨로 새기거나 파피루스에 기록하여 문명왕조의 품격을 남겼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음만으로 문자 전송하는 트렌드가 이미 고대 이집드 문자에서는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집트에서는 모든 왕조가 순탄히 계승된 것은 아니었다. 그 사이에는 내부의 반란, 외적의 침입 등 혼란을 겪는 중간기도 제법 있었다. 이때에도 왕조는 지속되었으나 본토 왕조가 멸망하고 심지어 외인 침략 왕조가 들어서기도 하였다. 심지어 마지막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후계자인 그리스계 왕조이며 그 마지막 왕이 바로 로마제국에 멸망한 크레오파트라 7세였다.

이후 이집트 왕국은 사라지고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왕조의 속국으로 13세기 이후에는 300년간 노예들이 세운 맘루크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16세기부터는 오스만 투르크, 프랑스 나폴레옹, 영국 등의 지배를 받으며 중요 문화재들은 유럽으로 수없이 반출되어 대영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등지의 중요 전시물이 되었다.

비록 1922년 독립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찬란한 문명 뒤에 그보다 더 아픈 과거들이 남아 있는 이집트이다.

제15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모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제15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공모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전국의 박물관 학예직의 학술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6년에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제정하고 우수 논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에 이르는 학술상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대상

가. 학술논문

2025년에 게재(출판)된 학술논문(도서)으로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발간하는 연속 간행물에 개재된 논문
- 전시도록 및 학술자료집에 게재된 논문
- 공모분야에 해당하는 도서(저서, 공저, 번역서 포함)

나. 전시도록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에서 발간한 전시도록
- 2025년부터 시작한 전시로 폐막일은 상관없음.

다. 다음의 경우 공모대상에서 제외

- 석.박사학위논문
- 국외 및 국내 순회 전시용 전시도록(순회 전시 첫 번째 전시도록만 허용)
- 외부 용역사업의 결과물로 게재된 논문

공모대상

-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보존과학· 박물관학 관련
-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미술· 민속과 관련된 분야로, 세계문화 포함.

응모자격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원
- 학술상 응시는 1인 1편만 응모 가능
- 전시도록은 박물관명 또는 부서명으로 응모해야 함

공모일정

- 접수기간: 2026년 1월 2일 금요일 ~ 2월 27일 금요일까지
- 심사기간: 2026년 3월 4일 수요일 ~ 4월 중순
- 심사발표: 2026년 4월 중하순
- 시상식: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수상구분

학술상	수상자	상금
천마상	1명	일천만원
금관상	3명	오백만원
은관상	5명	삼백만원
특별상	2명	삼백만원

※ 최종 수상자 규모와 높은 등급의 수상자가 없는 경우, 그보다 낮은 등급에서 수상자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학술상 등급에 적정한 논문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서류

가. 학술상 지원서류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제출서류 1부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논문) 신청서 1부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신청서: 공동저자 확인서
- 재직증명서 1부
- 학술논문(PDF, 인쇄물) 각 1부
- 도서(PDF, 인쇄물) 각 1부

나. 전시도록 지원서류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제출서류 1부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도록) 신청서 1부
  ※ 반드시 HWP 파일 확장자로 제출해야 함.
- 전시도록 PDF파일 및 인쇄된 도록 3권
  ※ PDF파일 제출 시 반드시 게재자의 표지와 목차 포함해야 함.

다. 학술연구비 지원서류

-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금융통장 사본 1부
- 논문 게재, 심사비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중 택1 가능(사본 제출)
  ※ 학술논문 게재를 위한 자기부담 확인을 위한 자료임.

논문심사 기준

- 주제선정: 학술상의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연구 주제의 독창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등
-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적합성, 자료분석의 적절성과 객관성 등
- 연구결과: 연구결과의 명확성, 학술적 가치 및 기여도 등
-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제출방법

- 공모 신청 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 마감은 마감일 24:00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공모에 필요한 인쇄물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연속 간행물, 별쇄본, 전시도록 등
- 게재지가 인쇄 발간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PDF 또는 복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중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전시도록은 필요 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학술연구비 지원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에 응모한 자는 소정의 학술연구비(30만원)를 지원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가. 학술상 공모분야 또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학술상에 응모하였으나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다. 상업적으로 출판된 도서 또는 발행기관에서 원고료를 받은 경우.
라.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미제출한 자.
마. 해당년도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자.

참고사항

- 특별상은 단체상으로 박물관 또는 부서명으로 신청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절 논문은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 (02-790-5081)
- 사무국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101호
- 이메일: yuninsik@fnmk.org

국립중앙박물관회학술상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개관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변화의 물결, 박물관을 말하다>, <기후 위기와 박물관의 미래> 등 학술행사를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29일 열린 학술대회 <변화의 물결, 박물관을 말하다>에서는 생태학자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김영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비롯해 박물관, 교육, 과학기술, 생물학, 정치사상사, 인구경제학, 기후변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박물관이 직면한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를 진단하며, 미래 박물관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어 30일 열린 전문가 콜로키움 <기후 위기와 박물관의 미래>에서는 박물관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캐나다 최초의 '기후변화 큐레이터'. 소렌 브라더스가 참여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박물관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실천 전략을 공유하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세계인이 주목하는 K-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앞으로도 박물관 전문인력과 시설물 개선사업, 그리고 유물기증 등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이 나아갈 새로운 여정에 적극 동참하며 후원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옥,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윤재륜 회장을 비롯하여 2023년 11월 박은관 회장이 취임했다.

회장	박은관
부회장	윤석민 허용수
당연직	유홍준
이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조현상 최두준 홍정욱
감사	김교태 김재훈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5,000여명으로 일반, 특별, 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주작회원
김정태 前 하나금융그룹
윤광자 국립중앙박물관회

현무회원
박은관 (주)시몬느
신성수 고려산업(주)

천마회원
권지혜 아이에스지주
김교태 KPMG 삼정회계법인
김남연 (주)동훈
김석수 동서식품(주)
김신한 대성
김익환 한세실업
김지원 한세엠케이(주)
김현전 히든베이호텔
남수정 (주)썬앳푸드
박선정 대선제분(주)
박진원 두산밥캣
배동현 창성그룹
변백현 방송인
손창근 소장가
송병준 컴투스/컴투스홀딩스/위지윅스튜디오
송치형 두나무
신동현 원헌드레드
신헌철 SK에너지
우찬규 학고재
윤 관 BRV Capital Management
윤석민 TY홀딩스
윤장섭 (재)성보문화재단
윤재륜 (재)성보문화재단
이수경 삼보모터스그룹
이옥경 서울옥션
이우성 SGC 에너지(주)
이주성 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
장선하 (주)교원인베스트
장인우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세영모빌리티(주)
전재범 금강공업(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조영준 우양산업개발(주)
조현상 HS효성그룹
차가원 (주)피아크그룹
천신일 세중문화재단
최두준 (주)동남유화
최태원 (주)SK
허용수 GS에너지
허윤수 (주)알토
허윤홍 (주)GS건설
홍석조 (주)BGF그룹
홍정욱 (주)올가니카

금관회원
강덕수 (주)STX그룹
경 원 극락사
권재현 반도건설
권준일 구재선 Actium Group
권택환 신대양제지(주)
김대환 (주)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김만옥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승겸 서륭지주(주)
김재훈 영풍제약
김지연 (주)컨셉
도형태 갤러리현대
류지훈 SB investment
마크 테토 TCK Investment Management
박경진 (주)진주햄
박병엽 前 팬택씨앤아이
박선주 영은미술관
박영주 (주)아성
박용윤 前 한국박물관회
백진우 (주)동성케미컬
성래은 (주)영원무역홀딩스
송영숙 한미약품
양홍석 대신증권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유승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윤현경 동화약품
이교상 서울가든호텔
이규식 경신금속(주)
이명희 일우재단
이상재 (주)삼화택시
이정용 가나아트갤러리
이주한 (주)삼익유니버스
이택경 매쉬업벤처스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장승준 매일경제
정명훈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재봉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정혜신 국립중앙박물관회
주신홍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최웅선 (주)인팩
최정훈 (주)이도/한강에셋자산운용(주)
최철원 Might&Main(주)
한혜주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홍정혁 BGF
홍진기 마리오아울렛

은관회원
강승모 KP그룹
강원기 (주)오리온 베트남 법인
구동휘 LS MnM
구본혁 INVENI
김건호 (주)삼양홀딩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김민수 (주)삼익악기 스페코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김영명 (재)예올
김영희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은혜 지알엠주식회사
김종한 종합전기(주)
김지태 태아산업
김태훈 두원중공업
남태훈 국제약품
류방희 (주)풍산건설
민병철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민준기 덴톤스리/(주)민병철교육그룹
박영정 V&S 자산운용
박주원 시몬느 패션컴퍼니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서경선 (주)대명건설
서재량 국립중앙박물관회
성필호 광성기업
송 철 성문출판사
신병찬 前 국립중앙박물관회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유진현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유창종 유금와당박물관
윤보현 (재)성보문화재단
윤정선 SB성보
이연화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용균 알스퀘어
이우일 (주)유니드
이우현 OCI그룹
임지선 보해양조(주)
정은미 블룸앤코
최성환 SK네트웍스
한석현 SM엔터테인먼트
함영준 (주)오뚜기
현성욱 (주)태양/(주)승일/(주)세안
현지호 (주)화승코퍼레이션
홍정도 중앙그룹
홍정인 메가박스중앙(주)
황인규 CNCITY에너지(주)
황정환 (주)케이지에프

청자회원

강석훈 에이블리코퍼레이션
강호철 대교홀딩스
고기영 (주)금비
곽정현 KG모빌리티
구본권 LS MnM
구본상 LIG
구본욱 (주)LK
구용수 닥터구의원
구원경 예스코홀딩스
구원희 한성플랜지
구은성 LS 네트웍스
구형모 (주)LX MDI
국현영 세기상사(주)
김경영 국립중앙박물관회
김경희 illda
김낙승 PWC-삼일회계법인
김녕자 (재)예올
김동관 한화그룹
김동준 키움프라이빗에쿼티
김동철 (주)서브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김미원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상윤 유리자산운용
김서준 (주)해시드벤처스
김석현 성신양회
김성완 스무디킹
김세연 前 국회의원
김연규 JYC 인터내셔널(주)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영수 한국청소년연구소
김영혜 前 제일화제
김옥경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유석 (주)행남
김윤수 지리산문학관
김인순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정주 (주)NXC
김종학 서양화가
김주원 (주)서라벌
김창희 베뉴지(주)/정도건설
김태현 성신양회
김택진 (주)엔씨소프트
김현강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남재욱 (주)인젠트
노 석 석플란트치과병원
노재연 오로라월드
담서원 오리온
류중희 (주)퓨처플레이
류철호 前 한국도로공사
문수희 국립중앙박물관회
문윤회 아주(주)
민경남 국립중앙박물관회
박범준 (주)에이치케이디 코리아
박선경 前 용인대학교
박성재 성호전자
박세창 금호건설
박은하 국립중앙박물관회
박재상 방송인
박재연 성곡미술관
박재영 (주)두리/(주)그린스톤
박정빈 (주)신원
박정원 재미교포
박준영 본음인베스트먼트
박해춘 前 국민연금관리공단
박향미 국립중앙박물관회
박형진 국립중앙박물관회
박혜성 (주)프란
방정오 TV CHOSUN
배상민 (주)국순당
배용범 KKR Asia Limited
배윤식 (주)한국체인모터
봉 욱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동임 국립중앙박물관회
설윤석 대한광통신
손원락 (주)경동인베스트
송재준 (주)컴투스/(주)크릿벤처스
승지수 동화기업
신연균 아름지기재단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신지연 국립중앙박물관회
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신춘수 오디컴퍼니(주)
신혜수 디블록자산운용(주)/디블록그룹
양승화 (주)DSP 홀딩스 /(주)두성테크
양인집 어니컴(주)
양태회 (주)비상교육
어호선 VTI파트너스
오경희 국립중앙박물관회
오승민 동일산업(주)
오치훈 대한제강(주)
우승협 (주)신도리코
유동현 (주)인성
유영지 유금와당박물관
윤승현 (주)뉴라이트전자
윤일영 영안주식회사
윤철수 국립중앙박물관회
이갑재 삼일회계법인
이규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이기웅 열화당
이만규 에머슨퍼시픽
이미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이보람 (주)성우하이텍
이부건 탄탄글로벌파트너스
이선진 목금토갤러리
이승용 (주)에이티넘파트너스
이영순 한국미술협회
이영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용진 (주)경농
이운경 남양유업
이윤기 스위스그랜드호텔
이인수 수원대학교
이재욱 대주기공/전남일보
이주엽 대륭그룹
이준우 흥아해운
이지형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前 롯데쇼핑
이학준 크리스티코리아
이해진 NAVER
이 혁 국립중앙박물관회
이혜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임채현 보해양조(주)
장동진 (주)파워맥스
장선익 동국제강(주)
장성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장우진 대한다업(주)
재단법인양현
전영이 국립중앙박물관회
전영채 한길봉사회
전윤수 중국미술연구소
정영수 EUNSAN
정영해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운규 (주)성우F&I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정재호 대호물산(주)
정지이 현대무벡스
정해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조기훈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조동길 한솔문화재단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
조연주 한솔케미칼
조영미 경동소재
조재현 방송인
조희경 (주)화요
진재욱 인터오페라
차원태 차병원/차바이오그룹
차원희 차병원그룹
천석규 천일식품(주)
최선묵 조광건업(주)
최세훈 (주)카카오/카카오페이
최원영 L Catterton
최원준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최인선 국립중앙박물관회
최재원 SK(주)
최창화 국립중앙박물관회
최혜옥 국립중앙박물관회
최훈학 (주)한국가구
한경원 (주)노루홀딩스
한봉주 국립중앙박물관회
한승희 중앙에너비스
한영재 (주)노루홀딩스
허정석 일진홀딩스(주)
허진수 SPC파리크라상
허치홍 GS리테일
현명관 前 삼성물산
호종일 호성흥업
호창성 (주)더벤처스
홍범석 백미당
홍석표 고려제강
홍성표 고려상사(주)
홍원복
김근호 국립중앙박물관회
홍정국 (주)BGF
홍진석 前 남양유업(주)

백자회원

고석명 (주)크린텍
김선형 (주)키출판사
김용남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창년 국립중앙박물관회
김혜련 조각가
류헌진 (주)코한인터내셔널
박영규 용인대학교
박종화 국립중앙박물관회
백의현 국립중앙박물관회
성순현 국립중앙박물관회
오승희 국립중앙박물관회
이건무 前 국립중앙박물관
이경희 수필가
이성민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영훈 前 국립중앙박물관
이은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이흥표 前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숙희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청자 이화여자대학교
조현지 국립중앙박물관회
지건길 前 국립중앙박물관
최경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최두남 서울대학교
최연석 MBK파트너스
한승우 국립중앙박물관회
한재경 국립중앙박물관회
황혜영 국립중앙박물관회
황인석 (재)월롱애향장학회

수정회원

강문석 국립중앙박물관회
고영애 국립중앙박물관회
권오경 전원건축
권혁준 (주)그리인
김경섭 충북대학교
김경태 국립중앙박물관회
김경희 국립중앙박물관회
김미숙 국립중앙박물관회
김민경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성구 국립경주박물관
김성구 (주)샘터사
김성진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소원 변호사
김수연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수정 UBS은행 서울지점
김영나 前 국립중앙박물관
김유진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윤옥 前 대통령 영부인
김은희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의형 前 한국회계기준원
김재홍 前 국립중앙박물관
김정옥 국립중앙박물관회
김혜경 국립중앙박물관회
김효진 국립중앙박물관회
라기주 국립중앙박물관회
문명재 국립중앙박물관회
박성근 국립중앙박물관회
박승준 국립중앙박물관회
배기동 前 국립중앙박물관
배병률 국립중앙박물관회
배윤경 국립중앙박물관회
배재호 용인대학교
변인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사경복 국립중앙박물관회
서성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서양순 국립중앙박물관회
설영기 대한여행사
성낙준 前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송인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신경은 국립중앙박물관회
신광섭 울산박물관
신용극 유로통상주식회사
신용욱 (주)유로커뮤니케이션
안상운 변호사
안휘준 서울대학교
양재국 국립중앙박물관회
연정애 국립중앙박물관회
염혜옥 국립중앙박물관회
오경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오근정 국립중앙박물관회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우계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유영주 국립중앙박물관회
유희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윤여경 국립중앙박물관회
윤종선 국립중앙박물관회
윤태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윤한영 국립중앙박물관회
이경은 국립중앙박물관회
이미애 국립중앙박물관회
이미화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상기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선희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시영 대한관광여행사
이애경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윤재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윤환 (주)홀리데이여행사
이은영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은형 하나금융지주
이인범 아세아(주)
이정호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정희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종미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종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지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지업 스튜디오지미
이한샘 국립중앙박물관회
이한영 (주)유니테크
임혜선 국립중앙박물관회
장성택 동진실업
장세희 (주)SAC
장순애 국립중앙박물관회
정건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정민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서원 농협중앙회
정서해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양모 前 국립중앙박물관
정연중 한의사
정영돈 (주)프라임메탈
정영현 (주)천마
정운남 정운남 치과
정은경 교사
조기현 뉘앙스성형외과
조동복 국립중앙박물관회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차인환 국립중앙박물관회
최광식 前 문화체육관광부
최봉순 국립중앙박물관회
최석영 몰프매니지먼트
최재영 국립중앙박물관회
최흥섭 인하대학교
허인효 국립중앙박물관회
홍승길 국립중앙박물관회
홍윤희 연세대학교
홍철환 국립중앙박물관회
황규희 국립중앙박물관회
황정숙 국립중앙박물관회
황충자 국립중앙박물관회

* 2025년 10월 기준

ISSN 1599-7863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04383, Korea
전화 (02)790-5090 전자우편 fnmk1974@fnmk.org 홈페이지 www. fnmk.org